



서울大同窓會報

발행처: 하트랜드 지부 주소: 6800 Alden, Shawnee, KS 66216 / 전화: 913-268-0228, 913-481-1097
발행인: 구명순 (chungmm101@gmail.com) 편집장: 박신혜 (spark@kumc.edu)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제 22차 평의원 회의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제 22차 평의원 회의가 6월 21 일에서 23일 까지 Washington DC에서 열렸습니다.저희 Heartland 지부에서는 김호원(전 회장, 치 52) 동문을 비롯해서 구명순(현 회장, 간 66), 배규영(직전회장, 사 68), 이상강(차기회장, 의 70), 김경숙(가 70) 동문 등 총 5 명의 평의원들이 참석하여 100%의 참석률을 과시했습니다.

21일 전야제는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Washington DC)에서 백남준의 Video Arts 를 관람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예술가 백 남준의 예술세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20 세기 초반 대표작가가 Picasso 라면, 20세기 후반은 백 남준이라는curator 의 말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날 안내를 맡은 curator 가 KU (University of Kansas) 를 졸업한 Kansas 출신이어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저녁식사 시, 미주 동창회 김은중 회장께서 서울에서 오신 임광수 총동창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대 총동창회 방문단을 소개하셨습니다. 소개 후에는 12 명의 동문에게 김은중 미주 동창회장 공로패가 증정되었습니다.

평의원 회의는 22일 오전 9 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 까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임광수 총동창 회장님은 격려사에서(전문 page. 3) 총 동창회 활동 및 현재 모교의 세계적 위치를 다시 한번 update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11 대 임원진(회장 김은중)의 사업보고, brain network 및 event 사업보고, 동창회보 보고, 재무보고, 모교 발전기금 보고, 관악 후원회 보고, 종신 이사회비 보고, 본국 동창회 및 미주 동창회 보조 분담금 보고, 감사보고 등 각종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14대 회장 Nomination Committee 위원 선출, 모교 발전기금 위원 선출, 테네시 지부 설립 신청, 지부 평의원 배정, 동창회비 인상안, 미주 동창회칙 중 회장 유고시 대처 규정 추가안에 대한 안건이 토의되었습니다. 오후에 있었던 13대 차기 회장 투표에서는 근소한 표 차이로 Philadelphia 지부 손재옥(가 77) 동문이 선출되었습니다.

회장선출에 이어 11대 김은중 회장의 이임사, 동창회기 인계, 12대 오인환 회장 취임사, 13대 손재옥 차기회장 인사 이임, 취임 격식이 끝난 후, 12 대 회장단이 회의를 인계받아 계속 진행되었으며, 12대 회장단의 사업계획안, 예산안 심의 및 12대 회장단 신임 임원 소개로 평의원 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녁 만찬 시 그 동안 수고 하신 12 명의 동문들에게 임광수 서울대 총동창 회장 공로패가 수여 되었고, 12대 총동창회 출범 축하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평의원 회의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 22차 평의원 및 워싱턴 동문 친선 golf대회 겸 임광수 총 동창회장 순회배 golf대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지부에서는 김호원/김정자, 배규영 동문이 참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평의원 회의 참석을 통해서 우리 지부의 현 위치, 타지부와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살펴볼 수 있었고, 또한 New England 지부와 Philadelphia 지부 평의원이 전원 참석하여 자신들의 지부 후보가 차기 회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분주히 오고가는 소리없는 노력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서울대 출신은 모래알 같아 뭉치지 못한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서울대 동문인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이번에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졸업후 40여년 만에 만난 후배들과 서로 "그래도 옛 모습은 남아 있다"며 학창시절 얘기로 꽃을 피웠고, 동창회를 계기로 몇 년에 한번씩 만나는 동기와의 해후로 밤이 늦는 줄도 모르며 아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3년 7월
서울대학교 Heartland지부 동창회장 구명순



- 백남준의 video art 미국지도 “electronic superhighway” Heartland 지역 앞에선 동문들 (사진 위)
- 11대 김은중 회장과 Heartland 지부 평의원 (사진 page 1)

임광수 총동창회장 격려사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6월호 발췌

임광수 총동창회장 격려사

“서울대인은 조국과 민족 앞에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중 회장님과 전임 회장님들, 그리고 오인환 차기 회장님과 평의원 동문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1년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제정치와 외교의 중심인 이곳 워싱턴 DC.에서 제22차 평의원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평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주 동창회는 그동안 미국 전역 각 지부 동창회의 결속을 굳건하게 다지며 동문들의 단합을 돕고 미주 한인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미주 동창회보는 미국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동문들의 소식을 자세히 전달함으로써 자칫 홀어지기 쉬운 동문간 네트워크를 끈끈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교 출신의 세계적 석학을 한 자리에 초빙해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의 정치·사회·경제 현황을 심층 진단하는 ‘Brain Network Workshop’은 미주 동문들의 빼어난 역량과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로, 서울대인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미주 동문들의 지속적인 단합과 새로운 비전 실현에 앞장서 주실 제12대 회장단과 집행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먼저 2011년 취임 이후 오늘까지 한 마음으로 뭉쳐 동문사회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주신 제11대 김은중 회장님과 임원진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박수)

또한 차기 회장으로서 취임하시게 된 오인환 회장님과 임원진에게 축하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미주 동창회를 잘 이끌어 달라는 뜻에서 큰 박수를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

친애하는 평의원 여러분! 저는 동창회장직을 맡아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총동창회는 지난해 동창회관 임대수입으로 25억 9천여만원의 장학금을 후배 재학생들에게 지급했으며, 11월 12일 모교에 70억 원을 지원하는 장학연구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동창회는 모교에 세계 초일류 학과와 학부를 만드는 ‘교육혁신 프로그램’과, 모교의 우수한 강의를 인터넷에 무상 공개함으로써 모교가 국민 속으로 깊숙이 다가가게 하고 국민 평생교육과 대학 강의 수준의 비약적 향상을 돕는 ‘교수 강의 동영상 강좌’ 프로그램

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2년 후 개학 120주년을 맞는 모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리기 위한 ‘서울대 120년사’ 편찬을 계획중이며,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100억원 규모의 ‘서울대 역사기념관’을 건립해 모교에 기증할 계획을 세우고 이 역사기념관에 전시할 여러 가지 자료를 모교와 공동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교는 지난해 초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립과 안정적인 재정 확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의 세계대학 평가에서 37위를 차지했으며, 동 기관이 실시한 아시아 대학평가에서는 동경대학을 제치고 4위에 오른 이후, 금년에도 계속해서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총동창회는 모교가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제정세를 이끌어 가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현지에서 성공신화를 써 나가고 있는 미주 동문의 존재는, 우리 조국과 모교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에 승기를 가져다주는 선봉장과도 같습니다. 미주 동문 여러분은 앞으로도 모교와 동창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삽니다.”

“서울대인은 조국과 민족 앞에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2차 평의원 회의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미주 동창회 임원 여러분과 워싱턴DC. 지부 동문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는 것으로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주 지역 동창회장 취임사

Group Intelligence (집단지성) 을 향하여

오인환

존경하는 서울대 미주 지역 동창회 회장님과 임원님, 지역대표 평의원님, 그리고 일반 회원 여러분 제12대 (2013.7 - 2015.6) 회장단의 중책을 맡은 오인환 (문63) 입니다. 제12대는 지난 20년간 11분의 전임 회장님 들께서 쌓아 놓으신 기반을 토대로 하고 New Generation 으로서 몇가지 새 사업을 해 보고 싶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 회원님들과 함께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끝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우선 역대회장 가운데 제일 젊은 기가 총동창회를 맡게 되었다는 것과 차기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라는 신규 회칙에 의거해 선거공약을 동창회보에 게재 하여 제20차 전국 평의원회 (LA) 에서 선출 되었습니다. 새 제도는 회장 입후보로서 회장이 되면 어떻게 미주총동창회를 발전시켜 보겠다는 포부와 계획을 해 보게 했다는 점에서 저도 많은 생각과 각오를 하게 되었고 전에 없던 신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으며 미주 총동창회를 한층 UPGRADE 를 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년을 뛰어 넘어 앞으로 다가오는 미주 총 동창회 30년 (for the 3rd Decade of SNUAA-USA) 역사의 지평을 열어 가는 시점에서 <미주 총동창회의 시대 정신> 이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으며 그것은 <Group Intelligence (집단지성)>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Group Intelligence (집단지성) 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은 다음 여섯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 Vision (꿈)을 공유하고
- * Communication (소통) 하며
- * Sponsor Commitment (총회회장단, 지역회장단, 평의원, 일반회원님들의 약속)
- * Implementation Team (총회회장단, 지역회장단들의 집행)
- * Process Ownership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고)
- * Group Interest (<나>보다는<우리>라는 개념의 필요)

우리 서울대 졸업생들은 모래알 같아서 뭉쳐지지 않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 위의 여섯가지를 잘 이해하고 실행하면 집착계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제21차 평의원회 (Alaska Cruise) (2012.7.8-15) 에서 발표한 <Leadership 과 Group IQ> 에서 주장했듯이 우리 미주 총동창회의 <Group IQ> 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 혹은 집단이든 Group Intelligence (집단지성) 는 그 단체의 성공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12대 회장단에서 할려는 사업들은 모두 <Group 의 노력> 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지역동창회 회장단, 평의원님, 일반회원님들께서 내일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끼고 참여 하여 총동창회 회장단, 지역동창회 회장단들의 <Group 의 노력> 이 성공하면 그것은 바로 미주총동창회 전회원님 들의 성공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로서 취임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클라호마 서울대 동문 모임

한소원 (사회대 87)

지난 3월 1일 금요일에 오클라호마 서울대 동문모임에 갔었습니다. 참 오랫동안이었는데요. University of Oklahoma 수학과 이경배 교수님이 모임을 주선해 주셔서 Norman 에서 가까운 히바치 중식 부페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모임에 Muskogee 에서 이상강선배님과 김경숙 선배님이 오셨는데, Muskogee 가 봄에 Azalea 가 유명하다고 꽃이 필 때 같이 모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 초에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4월 6일 토요일에 점심 모임으로 초대해 주셔서, 저는 심리학과 후배인 이태헌 교수와 같이 car pool 을 해서 갔는데요. 이상강, 김경숙 선배님이 계시는 Muskogee 는 제가 있는 Norman 에서는 두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도착해보니 꽃나무 뒤로 보이는 집이 너무 멋져서 감탄을 하며 들어섰습니다. 뒷마당에는 언덕이 있었는데 landscaping 이 잘 되어 있는 resort 처럼 보여서 다들 휴가 가실 필요도 없겠다고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거실에 차려놓은 전체요리에 샴페인까지 준비해 주셔서 모처럼 우아한 토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아드님과 따님이 요리를 거들어 주었다고 하시는데, 훌륭하게 자녀들로 키우신게 얼마나 큰 인생의 보람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식이라서 그런가요, 남자와 여자로 테이블이 갈려서 전 여자 선배님들 틈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아무도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었는데, 동문 모임이다 보니 학번으로 소개를 하니까 모처럼 제가 한참 젊은 축에 속하는 모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Retire 하실때가 가까우신 선배님들이 계셔서 새로운 관점으로 하시는 얘기들을 듣는 것도 무척 좋았습니다. Retire는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인데 이번 모임을 통해 선배님들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멀리 Kansas 에서 오신 Heartland 서울대 동문 회장인 구명순 회장님 내외분께서 오셨습니다. 전 처음 뵈었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회장님께서 떡을 가져오셨는데 떡이 참 맛있어 인기가 좋았습니다. Tulsa 서 박원춘 선배님 그리고 Broken Arrow에서 김제권 선배님께서 사모님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대선배님들이 오셔서 감사하고, 또한 건강하고 Active 하게 지내시니 참 좋았습니다. Edmond 에서 정민재 교수님 내외분이 아드님과 함께 오셨고요.

뒷마당 구경을 구경하였는데, 마당이 아니라 마치 산책코스 같이 넓고 아름다워서 화창한 날씨에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오는 길에 후배 이태헌 교수에게 남자들 테이블에서는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 물었더니, 너무나 대단하신 선배님들이라고 한국에 옛날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야기에 임진왜란 이야기 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다들 바쁘게 사시고 또 가깝지도 않아서 자주 만날수 없지만, 이런 모임에서 건강한 모습을 보니 참으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계대전: 일자리 창출

이상문 (상대 57)

미 네브래스카 대학교 석좌교수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수 많은 국가간, 지역간 전쟁과 분쟁을 볼 수 있다. 또한 두번에 걸친 세계대전에 이어서 약 50년간의 동서 양 진영의 냉전 시대를 경험했다. 오늘 우리는 더욱 심각하고 위급한 세계전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자리 창출 전쟁이 바로 그 것이다. 세계 인구는 70억명 이상이다. 15세에서 60세 사이의 인구는 약 50억명으로, 그 중에서 30억명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거나, 일자리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단지 12억개의 일자리만 존재할 뿐, 나머지 18억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자리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신성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고취해 준다. 미국의 설문 및 컨설팅사 갤럽은 75년 동안 미국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미국(인)의 꿈’이란 설문 조사를 진행해왔다. 가장 소중한 꿈은 평화, 자유, 종교와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꿈이다. 좋은 일자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뿐 아니라 국가와 세계 전체의 안정성까지 모든 것을 변화시켜 준다. 지난 2011년 발발했던 ‘아랍의 봄’ 사태는 이슬람 종교적 신념이 아닌, 단순히 자신의 품위를 찾고자 일하고 싶어했던 한 청년의 분신자살로 인해 촉발되었다.

현실적인 문제는 누가 그리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불을 지필 수는 있겠지만,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 특히 중소기업들이 돕고 나서야만 한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600만 소기업과 150만 중기업이 있다. 거의 매년 대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의 응용 (로봇화 및 자동화), 아웃소싱 (outsourcing) 또는 오프쇼어링 (off-shoring) 운영,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의 증대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소 기업은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일자리는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 비용 이상의 새로운 가치창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만들어

진다. 그것은 곧 어떤 형태로든 혁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혁신 (innovation)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다. 혁신은 새로운 제품/서비스/벤처, 더 효율적인 가치 사슬 운영 (value chain operations),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 새로운 시장 개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가치창조 방법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한다. 혁신을 심기 위해서는 창의성, 연구, 독창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혁신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다. 혁신의 수확은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은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 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창업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개인의 창업과 기업의 창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며, 쉬지않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개인 창업가들이 소기업을 개발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기업내 창업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아이디어를 기업의 지원을 통해 배양하는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벤처 사업이 출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중간 또는 대규모 기업이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기업가 정신은 각 사회 혹은 국가의 문화 성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권력거리 (power distance: 조직구성원들이 권력의 불균등한 배분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약하고, 위험회피성이 약하고, 개인주의적 성향, 남성성 (물질주의), 성취의 중요성, 보편주의 성향이 강한 문화에서는 창업이 번성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불행하게도 창업을 권장하는 이러한 여러 문화적 특성들은 한국에서 찾기 어렵다.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벤처 창업에 실패 한 사람이 재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패와 바보짓을 두려워 말자” 고한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과연 한국에서 창업할 수 있었을까? 젊은 세대들이 성공적인 창업가들을 종종 롤모델로 삼는 서구권 문화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창업이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미국의 성공적인 창업가들은 큰 성공 이전에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한 상습적 모험가들이다. 대기업의 기업내 창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타이레놀로 널리 알려진 제약회사인 존슨 앤 존슨 주식회사의 전 최고 경영자는 “존슨 앤 존슨에서는 그 누구도 실패하지 않고는 승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혁신과 창업의 융합을 저해하는 문화적 장벽들을 뛰어넘으려면, 혁신 동력인 ‘혁신적 창업 플랫폼 (innopreneurship platform)’을 만들어야 한다. 실업자들이나 파트타임직들에게 복지 지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혁신적 창업 프로그램’에 이들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혁신적 창업 프로그램은 첫째로 혁신과 벤처 창업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몰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창업을 돕는 멘토와의 연결을 주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개방 시스템에 익숙하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바탕으로 종잣돈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무상 또는 최저 임대료로 업무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창업 초기에 능력 있는 전문가들 (디자이너, 개발자, 벤처투자자) 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SNS, 벤처 커뮤니티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오늘날 성공한 정부 지도자들은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세계대전을 이겨내는 사람들이다. 박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특별히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혁신적 창업을 지원하고, 교육기관, 연구조직,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의 목표를 세워가는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즉시 효과적인 조치는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지역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창업의 공동 창조 (co-creation)와 학생조직들의 벤처 및 사회적 창업 (양심적 벤처) 활동에 대한 집중적인 보조금 지원이 이에 해당한다. 스탠포드 대

학교와 MIT는 새로운 벤처의 요람으로 유명한 학교들이다. 스탠포드를 기반으로 하는 벤처는 대략 4만개 정도이며 (구글, 씨스코, 야후 등), 5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연간 2조 70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대략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다.) MIT는 현재까지 2만 9천여개의 벤처기업을 (레이시온, 바이오젠, 로터스 등)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왔으며, 330만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했고, 연간 매출은 2조 달러 이상이다 (이는 세계 11위권의 경제규모이다.)

이러한 오픈 소스 문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어느 누구와도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반드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세워야 한다. 졸업생의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하는 방법은 기업가 정신을 죽이는 정책이다. 취업 활동은 제로섬 게임인 반면에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일자리의 파이를 늘리고 증대시킨다. 만약 스탠포드와 MIT 출신의 벤처 창업가들이 창업대신 취업을 선택했다면, 수많은 다른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그들에 의해 증대된 약 9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와 대학은 취업률이 아니라 졸업생들이 얼마나 창업노력을 바탕으로 혁신활동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는가에 따라서 평가 받아야 한다. 아마도 스탠포드나 MIT 대학이 한국에 있었다면,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한 수많은 졸업생들로 인해서 부실대학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다.

한국어의 기원

최은관 (상대 경영 64)



한국인이 어디서 왔는가는 기원이 확실치 않다.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어 족에 속한다고 하니 그 옛날에 우랄 산 (모스크바와 카작스탄 사이의 지역) 근처에서 살다가 무슨 일인지 동쪽으로 가서 한반도에 정착한 것 같다. 그러면 인도 유럽어족이 우랄 산 남쪽에서부터 사방으로 퍼졌다고 하니, 우랄 알타이어와 인도 유럽어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인류의 중요한 조상들이 중앙 아시아에서 퍼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대 언어 중에서 우리가 중앙 아시아에서 왔다는 증거가 있을까?

대표적인 인도 유럽어는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일 것이다. 현대 영어 단어의 1/4이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언어들과 우리 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불규칙 동사가 많기는 하지만, 규칙 동사의 경우에, 영어에서는 동사 끝에 -ed 를 붙이면 된다. 예를 들면, pass 의 과거는 passed 가 된다. 독일어에서도 규칙 동사의 경우에 끝에 트(또는 테, 타) 소리가 들어간다. 예를 들면, Sie spielen Klavier를 과거로 하면, Sie spielte Klavier (그들은 피아노를 쳤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로 Vorrei pagare il conto (식비를 치르고 싶습니다)이지만, 지불했다, 계산을 치렀습니다라고 하려면, ho pagato il conto의 경우처럼 pagare(지불한다)가 pagato(지불했다)로 변한다. finire(끝내다)가 finito(끝냈다)로 변한다. 물론 영어에서는 pay(지불하다)가 paid (지불하다)로 바뀐다. 과거형은 규칙 동사의 경우에 동사의 원형에 -ed 또는 트 발음이 붙는 것이다.

한국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어에는 불규칙 동사가 많이 없고, 과거를 나타낼 때는 -ㅅ다 라고 끝에, 셴 발음이 들어 간다.

우리 말과 가장 가까운 일본어에도 불규칙 동사가 많이 없고, 과거형이 비슷하게 변한다. わかる(안다, 이해한다)가 わかった (알았다 또는 사투리로, 알것다)가 된다. たべます(먹습니다)가 たべました(먹었습니다)가 된다. 그러니 한족과 일본족도 원래는 중앙 아시아의 우랄 산맥 밑에서 살다가 동쪽으로 이사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국에 주저앉은 사람은 한국인이요,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은 일본인이 된 것이다. 우리말과 유럽어는 중국어보다 더 가까웠던 것이다. 인도 유럽어족도 우랄 산 서쪽에 코카서스 산지에서 살았으니, 우리와 같이 과거를 표현하는 동사에, 트 또는 -ㅅ다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말은 중국어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중국어의 과거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대체로 -ㄹ라로 표현한다. 你吃了嗎? (니, 출라마?: 너 밥 먹었느냐?)라고 과거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중국인은 우리 선조가 우랄 산 근처에 묵고 있었을 때 우리와 같이 있지 않은 종족이다. 그러나 몇천년이 지난 뒤 중국인은 지금의 중국땅을 점거하였고, 우리는 그 옆에 붙어살이를 해온지 몇천년 된다. 할 수 없이 이웃 사촌이 되니, 자연히 우리는 중국어를 많이 빌려 왔다.

보통 한국인이 쓰는 한글 문장에 반 이상이 한자 뿌리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유식한 표현을 하려면 한자가 더 들어간다.

한자는 이조 이전부터 빌려온 문화이지만, 우리 말이 초기에 발달하는 과정에도, 아니 한자가 수입되기 전부터도 중국어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대명사에 "너"는 중국어의 你(니)로부터 빌려온 것 같다. 这个苹果(이 사과)의 찌거 (이것), 那个人(나거렌, 저 사람)등에서 보다시피, 우리말의 대명사는 중국어에서 빌려온 것 같다. 우리 말에, "나는 아침 먹었다, 너는?"과 "我吃早餐, 你呢?"의 "니는?" 거의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인은 중국인의 문화를 대체로 빌려왔고, 그 중에 얼마큼은 일본에 전해 주었다. 우리말을 서양 사람과 중국인 러시아인이 빌려갈 때가 올 것인가?



자녀교육

박혜송 (음대 68)



구명순회장님의 권고를 받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이들 셋을 모두 Ivy League 대학에 보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5세였던 1975년 결혼한 후 같은해 미국땅에 첫발을 딛게 되었고 79년, 82년, 85년에 각각 딸, 딸, 아들을 얻게 되어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그후 아이들이 프리스쿨에서 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마치고 사회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였다. 다행히 아이들이 착하게 잘 자라준 것이 고마울 뿐이고, 어떻게 하다보니 세 아이가 모두 Ivy League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공립 학교인 Shawnee Mission School District 에서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Shawnee Mission West High School 을 다녔다.

큰딸은 코넬 대학 (Cornell University) 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double major 로 졸업했다. 코넬 대학 (Cornell Univ.)는 뉴욕주 북쪽에 있는 Ithaca 라는 도시 산중턱에 위치해 있는데 캠퍼스가 정말로 아름다운 훌륭한 학교다. 2001년에 졸업한 후 지금은 뉴욕시 맨하탄에 있는 마케팅 회사에서 VP로 일하고 있다. 둘째딸은 하버드 대학 (Harvard University)에서 영문학과 불문학을 전공했고 하버드 대학 (Harvard Univ.)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이 잘 알고 있듯이 Cambridge, Massachusetts 에 위치해있으며 1636 년에 설립된 (미국내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기관 The oldest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유서깊은 우수한 대학이다. 2004년에 졸업한 후 현재는 Philadelphia, Pennsylvania 에 있는 펜실베이니아 대학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영문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셋째인 아들은 Providence, Rhode Island 에 위치한 브라운 대학 (Brown University)에서 국제 외교 (International Relations) 전공으로 졸업했다. 브라운 대학 (Brown Univ.)는 좀 규모가 작은편이고 필수과목이 따로 없는 자유분방한 학습을 장려하고 Liberal Arts 부문이 강한 우수한 학교로 알려져 있다. 2008년에 졸업한후 현재는 Google 뉴욕지사 에서 Business Analyst 로 일하고 있다.

특히 우리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Presidential Scholars 중 한 명으로 그 당시 백악관에 초청받아 클린턴 대통령 (President Clinton) 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 Presidential Scholars Program 은 1964년에 시작되었으며 매년 각 주에서 그 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중에서 우수한 남자 여자 한 명씩을 뽑고 또한 예술 계통에서 특출난 약간 명을 추가해서 100여명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Presidential Scholars Program 의 후보중 한 명이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막상 캔사스 주(State of Kansas) 에서 뽑히는 여자 한 명이 되리라고는 본인이나 부모나 생각지도 못했었다. 덕분에 우리 부부도 백악관에서 열리는 ceremony에 참석하고 또 대통령을 만나는 잊지 못할 추억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첫 아이가 태어났던 1979년에 내 나이가 만 29세였다. 생각해보면 그리 적지않은 나이 였건만 어찌 그리 아무것도 몰랐던지 병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 놓고 찢찢매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후 둘째, 또 셋째가 생겨 세 아이의 엄마가 되고 보니 돌이킬수도 없는 일이고 엄마 역할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양 살아온것 같다. 이제 세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온지 몇 십년, 그동안 깨우치고 배운 것들이 너무도 많고 지금도 어떻게 해야 성인이 된 아이들의 엄마 노릇을 현명하게 하는 것인지 연구중이다. 평생과제라고나 할까? 또한 내가 고등학교때 동네아이를 가르치며 시작한 피아노 선생,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그 과정에서 주시하게 된 학생들과 그 부모 사이의 관계를 경험하며 나름대로의 느낌과 깨우침이 많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나는 것들 몇가지를 적어본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일이라 생각된다. 소위 말하는 Self Esteem 이 성공적이고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있는 핵심이라고 본다. 그 시작은 갓난 아기에 부모가 안아주고 젖을 먹이며 만져주고 눈을 마주쳐주는 일로 시작된다. 그후 유아 기간중 같이 놀아주고 얘기해주고 사랑해 주는 일로 이어질것이다.

일본에서 바이올린 교습 방법으로 시작되서 전 세계로 퍼지며 모든 악기의 교습 방법의 모델이된 Susuki Method 의 기본 이론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이다. 핵심은 Small Step Approach 이다. 초보자에게 아주 작은 과제를 주고 그 간단한 과제를 계속적인 반복으로 익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과제로 넘어간다. 아이가 그 작은 과제를 이룰 때 마다 칭찬을 해주고 그 과정이 반복되며 아이는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자꾸 다음 단계로 가고 싶어한다. 1898년에 일본에서 태어난 Shinichi Susuki 는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보며 영감을 받아 그단계를 음악교습에 적용했으며 그래서 이방법을 Mother-Tongue Approach 라고 했다. 선생과 부모는 아이가 못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 이룬 것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Positive Energy 가 성립된다. 미국에서 피아노 레슨을 시작하며 Susuki Method 를 배웠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Very Small Step, Repetition, Success, Praise, Positive Energy, Self Confidence, Self Esteem 등의 Key Words 를 기억하면서 이 이론을 적용하여 학생들을 계속 칭찬하니 나도 기분이 좋았고 또 효과적이었다. 부모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아이들에게 Self Confidence 를 심어주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아이들이 학교갈 나이가 되어가며 생각해 볼 중요한 몇 가지를 열거해본다.

1. 책의 중요성

아주 어린나이부터 항상 책을 가까이하고 많은 책을 보도록 최선을 다한다. 첫 딸아이가 어릴 때 도서관이나 서점에 어린이용 책이 너무 다양하고 많은 것에 놀랐었다. 이곳 도서관 제도가 잘 되있어서 돈 안들이고도 도서관을 이용하면 무제한의 책을 보게할 수있다. 책을 많이 보면 우선 영어 과목이 해결되고 다른과목도 저절로 따라온다. 결국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2. Special Activity

아이들의 소질이나 취향을 감안하여 한두가지 special activity 를 정하여 어릴 때부터 키워나가면 아주 좋다. 이러한 activity의 효과는 많겠지만 특히 자신감, 집중력개발, 인내심, time management, 성취감, 사회성개발 등이 있겠다.

3. Motivation

어릴때부터 대화를 통해 목적의식을 느낄수 있도록 도와준다.

Motivation and Determination : The key to every success - very important

4. Good Relationship

항상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숙제나 교과에 어려움이 있는지 주의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아이들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고 서로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이들이 항상 엄마는 내 편이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고 느낄수 있게 아이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도록 한다. 아이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학교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여러면에서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아이가 마음이 편해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할 수 있다. 부모와 아이들과의 좋은 관계는 어릴 때 시작된다. 중 고등학교에 가서 이미 멀어진 관계를 고치려면 매우 어렵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여러 사람을 보며 느끼는 것인데 아이들한테 너무 한국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서는 미국인, 집안에서는 한국인으로 행동해야 한다면 너무 부담이 크지 않을까?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Ivy League 대학이나 그에 버금가는 Top School 에서는 어떤 학생을 원하고 Admission Process 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간단하게 적어본다.

Ivy League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

1. **Academic Excellence:** 우선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공부가 전교 일 이등을 유지할 만큼 최상위권에 속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가장 수준높은 과목들을 이수한다. Standardized Test 에서도 99 percentile 에 들어갈 정도가 바람직하다.

2. **Special Activity:** 어떤 단체나 Club 같은데서 Leadership 을 보일 수 있다던가 한 두가지 분야에 특출난 재능이 있으면 좋다. 예 - 음악, 미술, 운동, School Newspaper, Debate, 등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Team Sports 에서 두각을 보인다던가, 수영, Dance, 테니스 같은 개인 운동에서 State 이나 National level 까지 간다던가, Musical instrument, 성악, 미술같은 부문에 뛰어난 소질을 볼 수 있는 Award를 받았거나, Science fair 나 Math competition 같은 분야에서 High level achievement 가 있으면 좋다. 아이의 적성과 재능을 참작해서 과외 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 좋다. 한가지 염두해 둘 것은 너무 많은부문에 참가하지만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것 보다는 한 두가지 하면서 그 부문에 출중한 것이 바람직하고 또 높이 평가된다.

3. **Community Service:** 학생의 passion 이나 흥미를 반영되는 부문에서 사회봉사에 참가 한다.미국 사회는 Volunteerism 을 높이 평가 한다. 한 두 가지는 필수이다.

4. **Recommendation:** School Counselor 와 교과 과목 교사의 돌보이는 추천서가 있으면 좋다.

5. **Essay:** Application 작성하면 반드시 Essay 한 두 개를 요구하는데 그 학생 만이 쓸수있는 독창적인 Essay 가 중요하다. 아무나 쓸수있는 틀에 박힌 글 보다 본인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관찰 또는 사고가 보이는 글이 바람직하다.

6. 추가 사항 몇가지: 최상위 몇 학교는 경쟁률이 매우 높고 대부분의 지망생들이 아주 우수한 Top Performer 들이라 Standardized Test 에서 만점을 받거나 전교 일등을 해도 Admission 이 보장 안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일반학생들에 비해 동양 학생은 우수한 아이들이 워낙 많아서 한국 아이들은 더욱 심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 참고로 금년에 Harvard 대학에 35,203 명이 지원했고 그중에 합격통지 받은 학생이 2,017 명이다. 5.8% rate, 거의 18:1 의 경쟁율이다. 이 지원자중 Valedictorian (고등학교 전교 일등) 이 3,800명이고, SAT 영어 만점자가 거의 3,000명이고, 수학 만점자가 거의 4,000명이라고 한다. 결국 학교 전교일등이나 SAT 만점을 받고도 합격 안되는 학생이 많다는 얘기다. 공부도 잘하지만 뚜렷한 개성이 있는 학생, 자기의 의견이나 목표가 분명한 학생, 어떤 한방면에 특출난 재질이 있는 학생 등을 원하는 것 같다.

또 한가지는 대부분의 동양 학생은 영어보다 수학점수가 높다. 한국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보통 미국 가정 아이들에 비해 영어 과목에서 뒤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부모 때문일 것이다. 고등학교 때 Standardized Test 보려고 하는데 영어 실력이 모자라는 것을 깨닫고 공부하려 하면 때는 늦으리. 영어 실력은 몇 달 공부한다고 늘지 않는다. 그래서 영어점수가 뛰어난 동양 학생은 Admission 과정에서 높이 인정받는다.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온가족이 신문, 잡지, 책들을 항상 읽는 습관을 기르고 또 Vocabulary 를 늘릴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y League plus a few top universities 들은 need-based financial aid 를 제공한다. 일단 학생을 뽑은 다음에는 financial aid 를 신청한 학생들에게 수입 정도에 따라 financial aid 를 주기때문에 수입이 높지 않아도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사립 학교 등록금이 워낙 비싸지만 학생의 집안,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장학금을 측정하기 때문에 미리 겁내고 포기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에 가기까지 한 18년 걸린다. 그 18년 동안이 아이가 앞으로 홀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와 훈련을 하는 기간인 셈이다. 내가 세 아이를 키우면서 터득한 것 중 하나가 사람은 태어나는 날부터 각자 다 다른 성격과 기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의 개성과 재능을 파악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지름길이라고 본다. 부모의 역할은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라는 말에 깊이 공감했던 때가 생각난다. 갓난 아기를 선물받아 성인으로 키울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한 인간의 성장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생각해보면 엄청난 축복이다.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았는데 두서없는 글이 된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만약 의문이나 의논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쾌히응답하겠습니다.

박혜송
913-481-1946
hyesonglee@yahoo.com



인류 최고의 걸작 오페라

Don Giovanni 와 Mozart

정공수 (Heartland 지부회장 구명순 부군)



작곡동기

1786년 겨울이었다. 모짜르트는 프라하의 극장 지배인 본디니(Pasqual Bondini)와 모짜르트와 오랜 친분이 있는 두섹(Frantisek Dusek) 부부로부터 한통의 편지를 받는다. 당신이 작곡한 피가로의 결혼이 이곳 프라하에서 얼마나 열광적이며, 질찬리에 공연 되고 있는지 보러 오라는 초대장이었다. 당대에 인기있는 쏘프라노 가수이며 두섹부인인 요세파(Josepha)는 1777년 잘쓰부르크 축제때 처음으로 모짜르트를 알게된 후부터 서로 각별한 교제를 가져왔다.

비인에서 모짜르트의 오페라가 별로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때, 이 초대를 무척기뻐 했으며, 곧 바로 그는 아내 콘스탄체와 함께 프라하로 떠났다. 피가로 이외에는 오페라가 없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가 피가로 뿐이었던 프라하에 모짜르트는 1787년 1월 11일 에 도착했고, 그 달 17일에는 피가로가 상연되고 있는 극장에 나타나 청중들의 열렬한 박수 갈채를 받았으며, 20일에는 손수 지휘하여 프라하 시민들을 더욱 열광시켰다. 프라하 시민들 그리고 두섹 부부의 따뜻한 환대와 더불어 극장 지배인 본디니로부터 어쩌면 모짜르트도 은근히 기대했을 새로운 오페라를 100 두카트의 사례를 조건으로 의뢰받아 2월말 비인으로 돌아왔다.

개설

이 새로운 오페라 돈 지오반니의 대본은 말할것도 없이 피가로의 결혼 대본을 써서 대성황을 이루는데 공헌한 로렌초 다 폰테에게 맡겨졌으며 그해 4월 상순에 완성되어 모짜르트의 손에 넘겨졌다. 그때부터 돈 지오반니의 작곡은 시작되었고 거의 다 끝나가고 있던 그해 9월 초에 모짜르트는 이 미완성 초고를 들고 프라하의 여행길에 올랐다. 피리케(Eduard Morike)의 아름다운 단편소설 “프라하 여행길의 모짜르트”는 바로 이 여행을 소개로 한 것이다.

프라하에 도착한 모짜르트는 본디니의 따뜻한 대접과 두섹 부부로부터 조용하고 훌륭한 별장 베르트람카를 제공받아 이 새로운 오페라 돈 지오반니를 완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은 서곡은 초연되기 전전 날 10월 27일부터 28일 새벽까지 하루 밤만에 작곡 했는데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잠을 자고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여 아침 7시에 그를 찾아간 사보 담당자에게 문제없이 악보를 넘겨주었다는 일화가 있다.

이렇게 완성된 돈 지오반니는 10월 29일 프라하 극장에서 모짜르트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모짜르트는 요란한 환호와 박수를 받았으며 초연은 대성공으로 다시 한번 프라하의 시민들을 열광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사실 모짜르트는 전작인 피가로의 결혼 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까봐 걱정했었으나 그 결과는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상연된 오페라 중에서 이보다 뛰어난 작품은 없었다고 절찬하였다. 이 시기에 모짜르트는 개인적으로

몇가지 사건을 겪고 있었는데, 그 하나는 4월에 베토벤이 방문했다는 것과 5월에는 부친 레오폴드가 사망한 일이다. 이 무렵부터 모짜르트의 집에는 경제적 궁핍이 시작되고 있었다.

초연부터 2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초연의 열기가 식지않고 프라하 시내 곳곳에서 인형극 돈 지오반니를 상연하면서 모짜르트의 열기속으로 관광객을 부르고 있는 것을 필자는 목격하고 프라하 초연의 자긍심과 모짜르트에 대한 사랑을 간직 하려는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찬사를 보냈다.

비인에서의 초연은 그 다음해인 1788년 5월 7일 가수들의 요청에 의하여 몇가지 수정을 거쳐 초연되었으나 그리 성공적이라고 할수 없었다. 이날 초연에는 하이든도 관람했는데 이 오페라를 높게 평가했다고 전해진다. 오페라가 끝나고 그 날밤 많은 사람들이 모인 파티에 비인의 평론가 대부분이 참석했고 하이든도 그자리에 있었으나 모짜르트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새로운 작품에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었으며 모두들 돈 지오반니가 무한한 상상력과 다방면으로 천재성이 빛나는 작품이라는 것에 동의했지만 너무나 혼란스럽고, 음악으로 넘치며, 멜로디하지 못 하다는등, 불확실성이 있다는 등, 다들 한마디씩 하고 난 다음 조용하고 겸손하게 앉아있는 늙은 대가 하이든에게 의견을 물었다. 하이든은 말했다. 몇가지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그 모짜르트야 말로 인류가 아는 가장 위대한 작곡가라는 점이다” 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조용해졌다.

1792년 바이마르에서 초연을 들은 괴테는 그의 친구 쉴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것은 돌도없이 뛰어난 작품이며 모짜르트가 죽고난 후에는 이런 오페라를 다시 볼수 없을 것이라고 적고 있다. 영국 왕립음악 아카데미의 최초의 수장으로로서 19세기초 영국 음악 교육을 진두 지휘했고 비평가이며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였던 크로취(William Crotch)는 그의 음악적 미학의 담론에서 모짜르트의 돈 지오반니는 그의 가장 수작으로 알려져 있으며 빛나는 이탈리아 선율의 아름다움과 세련된 음악은 진정 따라올자가 없으며 당대에 활동했던 작곡가들 중 가장 위대한사람이다 라고 부연하고 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쇠렌 키엘케고르는 그의 저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에서 모짜르트의 돈 지오반니가 최고의 예술작품 이라는 주장을 옹호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수년전 뉴욕 필하모닉은 돈 지오반니를 인류 최고의 오페라로 선정했다.

작곡내용

이처럼 훌륭한 작품인 돈 지오반니의 소재는 스페인에 14세기 경에 있었던 전설적인 인물 Don Juan Tenorio (실존했던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의 엽색 행각이다. 내용인즉 한 바람둥이 귀족이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호색적 삶의 유희를 뉘우치지 못하고 끝까지 반성과 용서의 기회를 거부했으며, 잘난체 하고 버티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죽는다는 지극히 교훈적인 줄거리다. 모짜르트 이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돌의 손님”이라고 가짜니가(Gazzaniga) 작곡하였는데 다 폰테는이 작품의 베르타티(Giovanni Bertati)가 쓴 대본과 몰리에르의 희곡 “돈 환” 의 두 작품을 기본 자료로 하여 그의 독특한 재치와 박진감 있는 어법으로 흥미 진진하게 개작하여 이태리식 이름을 붙인것이 돈 지오반니 다.

그 시대나, 후세의 철학자, 사상가, 그리고 평론가 들은 “돈 환” 의 성격과 윤리를 거스르는 한 인간의 호색적 행동에 대해서 심각한 뜻을 부여하고 있지만 다 폰테는 이 작품에 있어서 주인공인 돈지오반니에게 그러한 심각한 뜻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듯 하다. 다만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본능의 추구를 부파(Buffa) 라고는 하지만 사실 희극도 비극도 아닌 해학적으로 그려낸 작품을 모짜르트는 그의 천재적 영감을 통하여 이 음악이 보다 활성화적이고, 극적이며, 아름답고, 유혹적인 표현으로 복잡하고, 비 윤리적인 인간 심연을 파헤치는 영혼의 소리를 들려주고, 행동하는 돈 지오반니로 탄생 시켰다.

등장인물

돈 지오반니(Don Giovanni): 주인공, 방탕한 젊은귀족(Dramatic Bariton)

돈 페드로(Don Pedro): 기사장, 돈나 안나의 아버지(Basso Profondo)

돈나 안나(donna Anna): 돈 오타비오의 약혼녀(Coloratura Soprano)

돈 오타비오(Don Ottavio) : 돈 지오반니의 친구이며 돈나 안나의 약혼남(Tenor Leggiero)

돈나 엘비라(Donna Elvira) : 돈 지오반니에게 버림받은 부르고스의 여인(Spinto Soprano)

레포렐로(Leporello) : 돈 지오반니의 시중(basso Buffo)

체를리나(Zerlina) : 농민의 딸, 마제트의 약혼녀(Sbratto Soprano)

마제토(Masetto) : 농민, 체를리나의 약혼자(Lyric Bariton)

주요 음악 및 아리아

필자는 이 오페라의 전곡 해설을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모짜르트가 살았던 시대와 돈 지오반니의 작품성을 쓰고 있는 것이다. 짧고 강한 투티(Tutti, 총주) 후에 조용하게 현이 음산한 화음의 연주로 시작하는 서곡은 이 오페라의 클라이맥스에서 기사장 석상이 돈 지오반니를 찾아가는 악상을 빌려 사용한 선율로 돈 지오반니의 운명을 암시하며 제 1막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극중의 선율을 사용하여 만든 서곡은 종래의 모짜르트 오페라에서는 없었던 일로 극히 예외적이다.

밤낮으로 주인에게 봉사하고 비바람도 참고 견디지만 자는 것, 먹는 것도 여의치 않다. 오늘도 주인은 집 안에서 재미를 보고, 나는 밖에서 망을 본다. 돈 지오반니의 시중 레포렐로가 신세한탄을 하면서 뉘두리를 늘어 놓는 아리아로 막이오르는 것만 보아도 이 오페라가 그저 순탄하고 매혹적이기만 한 멜로 드라마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변태적인 주인의 애정행각을 늘 비난하고 못마땅해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레포렐로의 심경이 과연 우리들은 아닌가 독백 해본다.

제4번곡, 아리아(레포렐로) “카달로그의 노래” (Madamina, il catalogo e questa)

끝임 없이 다른 여자를 찾아 헤매이며 자기를 거들떠도 보지않는 돈 지오반니의 애정행각에 분노와 실의에 차있는 엘비라에게 레포렐로는 카달로그를 내밀면서 자 마음을 가라앉치시고, 지금까지 나오리가 손댄 여자들의 이름을 적은 장부입니다 하고 빠르게 부르는 노래, 마님 내가 만든 나오리의 애인명부를 읽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640명, 독일에서는 231명, 프랑스에서는 100명, 터키에서는 91명, 스페인에서는 무려 1,003명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녀, 시골 아가씨, 거리의 여자, 백작부인, 남작부인, 공작부인 등 모든계급, 모든 스타일, 모든 연령의 여자를 총망라 하고 있습니다.

<약간 템포를 느리게 하여 4/4박자> 금발 여자는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갈색 머리는 정숙하다고 좋아하며, 겨울에는 살찐 여자, 여름에는 마른 여자를 좋아하지요, 몸집이 크면 당당하다고 말씀하시고, 작으면 귀엽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 많은 여자는 오직 명부를 채우기 위해서고, 특히 숫처녀를 좋아합니다. 예쁘거나, 덩그러니, 치마만 두르고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소리를 듣고있는 엘비라는 기가 막힙니다. 지오반니의 꾀임에 넘어가 수녀로서의 생활을 접고 처음 사랑을 그에게 받친 자기도 이 수많은 여자들의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입으로는 복수를 맹세하지만 지오반니가 위협에 처해지면 본심은 그를 도우려는 연민의 정이 엘비라의 이중성이다. 우리들은 또하나의 엘비라가 아닌지 이 오페라는 묻고있다.

제7번곡, 첼리나와 지오반니의 2중창 “자 서로 손을 잡읍시다”(La ci darem la mano)

농부 마제트와 결혼을 앞둔 시골처녀 첼리나를 피어내어 부르는 2중창. 당신 같이 아름다운 분이 저 시골뜨기의 신부가 되어서는 않된다고 말하자 첼리나는 그래도 마제트와 약혼한 사이니까 하고 주저하는데, 계속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지오반니에게 기울어져간다. 계속 끈질기게 유혹하는 지오반니에게 설득당해 자기 별장에서 결혼하러 가자는 지오반니의 말에, 가요 하고 체를리나는 따라 나서다가 때마침 나타난 엘비라에게 들기 고만다.

시골 농부의 아내가 되는것 보다는 이 건장하고 지위있는 귀족의 아내가 되는것이 훨씬 낫다고 목전의 이익만을 생각한 체를리나의 선택처럼, 이것이 정의로운가 뒤돌아 보지않고 잡은 잘못된 기회 때문에 혹시라도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없는지 반추해본다.

이 2중창(체를리나 와 돈 지오반니)은 너무 감미롭고 로맨틱한 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모짜르트의 모든 2중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의 하나이다.

제 21번곡. 오타비오의 아리아

“내 사랑하는 이(안나)를 위로해 주십시오(Il mio Tesoro intanto)”

돈 지오반니가 나쁜 짓을 하고 다니고, 안나의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이임이 틀림없다고 말하는 안나의 약혼자 오타비오가 그를 당국에 고발하여 안나의 원수를 갚아 주겠다고 말한다. 신분이 지오반니와 같은 귀족인 오타비오가 지오반니를 당국에 고발하여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것은 용기없고 비겁한 행동이며 당국의 처분만 바란다는 뜻이된다. 안나나 다른 사람들도 오타비오가 정정당당한 결투로 악당 지오반니를 죽음으로 응징해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용기없는자는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할 권리가 없다. 돈 지오반니가 석상의 회개하라는 마지막 충고도 저버리고 지옥불에 떨어져 죽은 후에 오타비오는 안나에게 여기서 당장 결혼하자고 조르나 안나는 손을 빼며 1년 아버지 상을 마치고 하자고한다. 결국 한일이 아무것도 없으며 남자다운 믿음직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위험을 피해가려했던 오타비오는안나와의 결혼도 불분명해졌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뒤돌아 보고싶다.이 오타비오의 아리아 “내가 사랑하는 이(안나)를 위로해 주십시오”는 말로 다 표현할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아리아로 그 서정적인 선율에서 풍겨오는 향기가 매우 진하며 부르기도 대단히 어렵다. 1788년 비인 초연에서는 가수가 힘들다고 노래하기를 거부해서 할 수 없이 삭제하고 제 7번 아리아를 새로 만들어 대체했다.

총 2,065명 이나되는 여자들을 섭렵했다는 돈 지오반니는 이 오페라 속에 나오는 3사람의 서로 다른 계층의 여인들중 어느 누구와도 성공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대본을 쓴 다 폰테의 기지와 모짜르트의 음악적 위대한 표현이 혼연일체가 된 불후의 명작이며 시대적 관습과 도덕적 견치레를 뛰어넘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인류 최고의 걸작임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에 표기되었듯이 이 오페라에 걸맞는 음색과 기교가 다른 배역을 고르는 어려움 때문에 자주 상연되지 못하는 아쉬움이있다.



My Dream Trip to Africa

꿈같이 다녀온 나의 아프리카 여행

김명자 (문리대 62)



거의 24 시간의 비행과 오랜 기다림 끝에 8시 30분이 지나서 드디어 켄야의(Kenya) 나이로비(Nairobi)에 도착했다.

비행장에서 버스를 타고 호텔을 향해 출발을 하자마자 여러마리의 크나 큰 기린들이 잔디위에서 있었는데, 처음에는 시멘트로 만든 조각품이라고 착각했으나, 곧 진짜 기린들 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내가 아프리카에 왔다는 실감이 났다. Safari Park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섯 시간 동안 아루샤(Arusha)로 달리는 동안 푸른 초원과 꽃이 막 피려고하는 아카시아 나무들, 작은 도시의 원주민으로 볼벼대는 장터를 지나갔는데, 주로 바나나와 망고, 석류등의 과일이나 옥수수등을 팔았고, 몇개의 소파와 침대, 옷장들이 가게 앞의 길가 노점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폰지 같은 납작한 게다 같은 것을 신고 있었고 아이들은 맨발이었다. 다시 경비행기로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도착 했을때 우리들 30여명은 5명씩 한 팀이되어 6 대의 사파리 차에 갈라 났고, 4 일 간의 사파리여행을 위해 마련한 작은 짐 보따리도 하나씩 실었다.

우리의 노란 명찰팀은 뉴욕에서 오신 안과의사인 한영수(67) 부부와 역시 뉴욕에서 온 이광희, 이 미옥 그리고 오태요 우리 부부였다. 운전수는 Rafael Phillips 로 정식으로 가이드 학교를 나온 영어를 잘하는 20대의 잘 생긴 젊은 남자였는데, 효도 관광으로 많이 오는 한국 노인들을 안내하기 때문에우리말로 사자, 코끼리,기린 등

을 다 알고 있었다. 여자 사자, 남자 코끼리하는 통에 우리들은 많이 웃었다.

서울서 14시간이 걸리는 거리지만 최근에는 KAL기가 일주일에 세번은 오기 때문에, 관광은 본격적으로 시작 된 듯 했다. 보통 식료품점,식당, 그리고 한국인 중 70%라는 많은 선교사와 목사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세렝게티 국립공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넓고도 넓은 초원이었는데, 처음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듯 했으나 안내원이 긴 풀사이에 누워 있는 사자와 멀리 멀리 보이는 임팔라나 버팔로 등을 쉽게 찾아 가리켰고, 우리들은 아우성을 치며 일어나서 열린 차의 지붕사이로 샷터를 눌러 대기에 바꿨다. 빅 파이브(Big Five)라고 사자, 코끼리, 표범, 버팔로, 코뿔소를 말하는데, 동물 보호 지역이라고 하지만 워낙 넓은 지역이어서 야생 동물들을 만나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각 사파리 전용차에는 라디오 장치가 되어 있어서 한 차에서 특별한 동물을 보면 서로 연락을 하여 곧 대여섯 차가 한데 모여 동물들을 관찰하기도 했다. 때로는 동물 이름을 알아 듣기가 힘들어 안내에게 재차 물으면 그림 사진을 찾아 보여 주었고, 너무나 멀리 있어서 무슨 동물인지 모르고 사진 찍기가 힘들때엔 안내원이 망원경으로 초점을 맞추고 사진기를 가져다 대고 찍어 주기도 했다.

일행중에는 7명의 선후배가 있었고 다른 대학졸업생까지10명이 넘는 의사들이 있었다. 이 넓은 사바나에만도 300만 마리의 초식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하고 그 광대한 지역에 초식 동물들이 먹을 풀이나 열매들도 열매든지

있고, 사자나, 표범, 치타 등의 육식 동물들을 위한 먹이도 충분히 있었다. 이곳은 1500m - 2000m 의 고원 지대여서 적도에 가까웠지만 70여도의 쾌적한 날씨였는데, 밤에는 소나기가 오고 아침이면 맑게 개여서 사파리를 다니는 동안에도 앞차에서 나오는 먼지가 일지 않아서 좋았다.

처음에는 사슴처럼 생기고 뒤 엉덩이에 까만줄이 4개 쳐져 있는 Impala를 보고도 흥분했고, 숫놈 한마리가 20-30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며 항상 암컷들의 무리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 왕노릇도 겨우 7일 정도, 또 다른 젊은 강한 숫컷이 나타나면 싸워서 이겨야 가부장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힘이 없거나 어린 숫컷들은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열마리 정도씩 무리들이 모여 있었다.

아침 5시나 6시경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7시전에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사파리로 떠났고, 계속 차 타고 다니면서 동물들을 찾고 사진을 찍어대는 힘든 여정이었으나, 식사 때면 매번 일행중의 누군가가 좋은 포도주를 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다림질을 한 개끗하고 매끈한 잠자리에 들면 어느새 모든 피로는 사라지는 듯해서 그 다음날은 생생한 몸으로 강행군을 지탱 할 수가 있었다. 오랫동안 많은 여행을 다녔으나 이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절감하는 듯 했다.

처음에는 멀리 보이는 수풀 사이로 보일까 말까한 사자의 모습에도 흥분 했지만, 나중에 몇 발자국도 안되는 거리에 대 여섯 마리의 사자들이 잠자거나 나무 밑에서 놀고 있는 새끼들을 보아도 그리 흥분되지는 않았다. 이때 나뭇 가지에 올라가 앉아 입을 짹 벌리고 있는 암 사자를 포착 했는데 나의 가장 좋은 사진이 된 것 같았다.

또 하나는 호텔 테에 나와서 작은 원숭이들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개미나 무슨 씨앗들을 먹고 있기에 비행기에서 받은 땅콩을 몇개 던져 주었는데 눈 깜짝 할 사이에 대 여섯 마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고, 나는 겁이 나서 방으로 급히 들어 왔고 몇 마리가 유리 창 밖에서 나를 들여다 보고 있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원숭이는 회색이었는데 숫컷의 생식기는 파랗고 가운데의 피너스는 새빨간색이었다. 보통때는 회색이지만 교미 할 때가 되면 그런색으로 변한다는 안내원의 설명이었다. 큰 원숭이로부터 시작해 얼마나 많은 원숭이의 종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자세히 연구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았다. 맹수들이 곳곳에 있고 원숭이들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으니 그들을 연구 하기란 무척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250만년 전 최초의 직립보행 인류를 연구하던 Louis and Mary Leakey 연구 장소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큰 화산 분지인 응고 롱고로의 올두바이 계곡이라는 것에 신경을 쓰면서 National Geography에 자주 나오던 사실들을 되 세겨 보려고 노력해 보았다. 박물관의 전시품을 보면서 조금은 이해가 가는 듯 했고, 마사이(Masai) 족이 사는 마을에 들어 섰을 때는 반갑기조차 했다. 영성하게 위은 작

은 나무가지 위로 진흙을 올려 놓은 작은 천막과 같은 집이 있었고, 지붕은 새파란 바이닐로 겨우 비를 면할 수 있게 덮어 놓은 것이었다.

남자들은 집이 없었고, 그들은 여러 명의 부인을 지니고 사는 삶이라 자기 부인집으로 기어 들어가면 되는 팔자였다. 작은 마을은 동물들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작은 나무 가지들을 주워다가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다. 집 안에는 자기들이 주워온 나무가지로 만든 보잘 것 없는 침대 두개, 그리고 맨 흙바닥에는 먼지가 쌓인 냄비 같은 것이 하나 덩굴고 있었다. 이들은 키가 크고 말랐으며 하이 핏치로 소리를 지르면서, 높이 쾅쾅쾅 잘뛰었고, 사자도 죽일 수 있는 팔뚝 굵기의 긴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는데,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큰 형집을 하나씩 쓰고 다니는 잡지에서 본 낮익은 모습이였다.

젊은 추장의 아들이라고 제법 영어를 잘하는 젊은이가 친절히 말을 걸어 오는가 하면 추장의 딸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구슬 목거리를 걸어 주기도 했는데, 알고보니 추장은 12명의 부인과 35 명의 자식들이 있었다. \$50을 내라는 추장딸의 말에 목거리를 살 마음은 전혀 없었으나 그들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10을 그냥 주었는데 계속 따라오며 무엇을 주겠다고 했다. 문명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달라의 맛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4일간의 세령게티 사파리를 끝내고, 마사이어로 “커다란 구멍”이라는 뜻을 지닌 응고롱고로는 약 350만년 전, 화산이 폭발하면서 무너져 내린 분지 모양의 땅이 되었는데, 땅이 비옥해서인지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였다. 수백 마리 아니 수천마리 야생동물들이 사는 안식처였다.

암보셀리에 도착하여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을 보고 구름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는 산 꼭대기를 찍느라고 고생들을 했지만, 다음 날은 구름 한점 없어 아름다운 산 꼭대기의 만년설을 제대로 잘 찍을 수 있었다. 들리는 호텔마다 운치가있고 멋이 있어서 하루쭈머 머물면서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나이로비에서 들렀던 사파리 파크 호텔은 한국 사람이 주인이었고, 카지노와 쇼 등 그 크기가 대단한 것이어서 또 한번 감탄을 금치 못했다. 큰 텐트 밑에 앉아서 여러 가지 종류의 바베큐를 즐길 수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악어와 타조 고기도 들어 있었다.

많은 백인들이 유럽으로 돌아 간 후, 요하네스 버그는 세계에서 범죄가 가장 높다는 명예롭지 못한 낙인이 찍힌 곳이었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어 더 지체할 수 없었다. 리빙스톤까지는 2시간 반이 걸렸는데, 사우스 아프리카(SA)의 비행기 마일을 유나이티드(UN)로 얻을 수가 있어서 뜻밖의 즐거운 일도 생겼다. 리빙스톤에 가까운 상공에 오자 비행기에서 볼 수 있는 안개 자욱한 곳이 폭포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로얄 리빙스톤 호텔은 빅토리아 폭포에서 가까웠고, 푸른 잔디가 깔린 뒷마당에는 임팔라들이 놀았고, 넓고 넓은 잠베지 강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침부페도 좋았고, 폭포를 볼 수 있는 곳이 16개의 장소로 되어 있었는데, 1번에서 시작해 오솔길로 물 세레를 받으면서 길 끝까지 가서 폭포를 내려다보고, 아름다운 무지개에 찬사를 올리면서 사진을 찍고 되돌아서 걸어 나오고, 20 야드쯤 걸어가서 2번째 오솔길로 걸어가서 또 폭포와 무지개를 보고 사진을 찍고, 걸어 나오길 15번이나 되풀이 했으니 16번째의 오솔길은 뻥할것 같기에 생략을 했다. 장엄한 물의 양과 폭포물이 쏟아지는 거대한 소리, 그리고 폭포의 웅장함에 우리는 지칠 줄을 몰랐다.

작년에 갔던 브라질의 이구아수 폭포는 우리가 갔을 때 275개의 폭포가 이층단계 또는 삼층단계로 물이 흘러 내리고, 한 곳만이 우리를 삼켜 버릴 것 처럼 웅장했는데, 여기는 장마철이라 강물의 양이 많아서 그런지 16 곳들 모두 장엄하기가 그지 없었다. 판초를 입었으나 물기는 스며들었고, 남편의 바지와 운동화는 폭삭 젖었다.

잠베지강의 선 셋 크루즈를 하는 동안 또 한번 사진 콘테스트가 벌어지는 듯했다. 초베 강보트 사파리에서 볼 수 있었던 수많은 코끼리들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수 많은 코끼리 가족들이 헤엄을 치면서 목욕을 하고 있었고, 새끼들은 놀고 있었는데 30-40 마리는 되는 듯했고, 다시 머리를 90도쯤 돌려보니 또 그만큼의 무리가 숲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야말로 코끼리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수의 코끼리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풀과 나무도 많은데다 큰 강까지 있으니 그들의 천국임에 틀림 없었다.

다음 날은 호텔에서 앞 마당으로 10여분 걸어서 짐바브웨 쪽에서 폭포를 볼 수 있었다. 걸어 가는 동안 얼룩말들이 호텔 마당에서 한가히 겁도 없이 풀을 뜯고 있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빈 룩(Windhoek)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밤이었고 우리들은 힐튼 호텔로 들어갔다. 남미브의 붉은 사막 소소스(SOSSUS), 예약 했던 호텔에 차질이 생겨 국립 공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메마른 들과 산들이 펼쳐져 있는 산장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운치가 있고, 아프리카의 캠프를 말해주는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했다.

붉은색 들을 향해서 갈때 올라오는 햇빛을 받아 양지와 음지를 더욱 명백히 보여주는 듯 했고 사진으로는 더 멋지게 보였다. 모두들 들 45를 올라갔지만 걸음이 느린 나는 포기했다. 카멜른 나무 밑에서 우리들은 호텔에서 싸 준 치킨등의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그런 구석까지도 항상 화장실은 깨끗해서 아프리카의 인상은 더욱 좋았다.

남편과 같이 경비행기를 타고 한 시간 사막 구경을 했는데, 여러개로 겹쳐진 들이며 동그랗게 자라나는 풀들이 인상적이었다. 지구에서 올라오는 독가스로 인해 가운데는 풀이 못 자란다고 했다. 그러나 그 흙을 화분에 옮기면 정상적으로식물이 자란다.

케이프타운은 말대로 깨끗하고 부자 동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세기에 많은 다이아몬드와 금으로

누구나가 다 부자가 된 듯했고, 유럽의 어떤 도시 못지않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으며 상점의 물건들도 뉴욕에 뒤지지 않게 고급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커스텐 부쉬(Kirstenbosch) 식물원에는 매그놀리아 나무들이 크게 자라고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푸로테리아 꽃은 이나라의 상징이었다. 꽃도 크고 탐스럽지만 오래 간다는것에 더 매력을 느꼈다.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곳의 희망봉을 돌아서 테이블 마운틴으로 갔다. 이틀 동안 바람이 불고 날이 흐려 못 갈것이라고 생각하고 불안 했었지만, 문 닫기 2 시간 전에 드디어 우리들은 정상에 반듯한 꼭대기로 올라 갈 수가 있었다.

이번 18일간의 아프리카여행은 많은 야생동물들, 최고의 서비스, 가장 좋은 호텔들과 안내원들, 그리고 짧은 시간에 가장 긴 거리를 카바했었기에 우리가 다닌 여행중 가장 값지고 멋진 것이었으며, 정 사장님 그리고 참으로 좋으신 32명의 동행 여러분께 귀한 시간을 나누어 주심에 큰 감사를 보내고 싶다.



긴 동행의 시작

김상성 (약대 96)



6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여러가지 기대로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항상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먹고 싶었던 음식들 특히 스키나 회 등을 마음껏 먹고 옛 친구들과도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2마리의 삼 고양이들 데리고 가느라 공항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가는 길은 경쾌했습니다. 시카고를 경유할 때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대한항공 승무원들과 고양이에 대해 잡담을 나누는 등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는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항에 도착하니 여러가지로 뭔가 이상한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같이 검은 머리에 작은 키들과 구분이 안되는 비슷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가득해서 내게 얼굴인식 장애가 생겼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마중 나온 식구들과 반갑게 헤어지며 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와 집으로 가는데 시원하게 뺐은 영종대교를 건너 시내로 접어들니 점점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고 낮은 네모 반듯한 건물들이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고 좁은 도로엔 차들로 가득 차있고 절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도로를 지나며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쯤 됐으면 많이 변했을꺼라 기대했지만 떠나기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다. 집이 있는 동네에 접어들니 빼곡히 들어찬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들이 가득했고 어디서든 녹색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온통 회색빛 콘크리트로 뒤덮힌 삭막한 환경이었습니다. 잔디가 깔린 집이 기본인 캔사스와는 정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집안의 식구들의 따뜻한 환대와 맛있는 어머니의 음식으로 그러한 이질감은 금방 잊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어딘가 일이 있어 버스를 타고 시내에 가서 이런 저런 구경을 하고 일을 보는데 이상한 점은 사람들이 전혀 미소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장의 점원은 커피를 거네거나 물건을 줄 때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오히려 외면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모든게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회색빛으로 뒤덮힌 도시와 그 안을 살아가는 미소없는 사람들. 불과 오자마자 며칠만에 형성된 인상이었고 그것은 실수없이 앞으로 펼쳐질 한국생활의 주된 테마이자 심적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국들은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엔 저의 외국 경험을 듣고 싶어할거라 생각했고 실제로 얘깃거리가 많은데 의외로 무관심한 모습이었고 오히려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루었는가를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성이 없는 무미건조한 일상이고 삶일 뿐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직장에서도 불편한 경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뭔가 연장자에 대한 존경을 가지적으로 보이려는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고 이는 특히 회식에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확연히 들어났습니다. 건강상태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폭탄주를 섞어 수도없이 건내는 것이 환영한다는 제스처였습니다. 일방적인 강요, 기존 체제와 관습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 등이 제 눈에 선명히 보였습니다. 만약 오랜기간 미국에서 살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것에 전혀 의문이 들지 않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다른 사회에 대한 경험이 한국 사회와 한국인을 보는 시각에 선명한 대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교직을 맡게 되어 수업시간에 만나는 학생들은 아무 질문없이 조용하게 수업을 듣기만 하고 새로운 교육적인 시도와 영어 사용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사회를 이끌 젊은이들이 구태에 빠진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위에 학교측에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스텝들을 최소화하는 바람에 일은 끝도없이 많아 밤을 새우고 주말에도 일해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분위기속에서 마음은 답답해져만 갔고 그렇다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어느날인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지금 내가 우울증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점점 의욕도 없어지고 활기도 사라져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여서 뭔가 이를 타파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스포츠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곤 해서 오랫동안 즐겨왔던 테니스, 수영, 골프 등을 시도하려고 주위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러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적었고 있어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서서 하는터라 의욕자체가 꺾였습니다. 등산조차도 산에 오르는데 줄서서 가야할 정도였습니다. 도시의 무게가 가득했고 숨막히는 분위기에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날인가 클래식 음악을 듣는데 마음이 차분해지며 예전 캔사스에서 정공수 장로님 댁에서 종종 가졌던 음악 모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멤버들과 즐거웠던 추억들, 디너들, 대화, 여유 등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곧 마음이 편해지고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순간 이후로 항상 클래식 음악들을 틀어놓고 듣게 되었습니다. 티비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들은 거리에서 파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처럼 귀와 눈을 강렬한 자극으로 뚫고 들어와 의식에 도달하는 류의 선정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진정한 한국적인 전통과 문화는 이런것이 아닐텐데 국적 불명의 멜로디와 안무로 이루어져 K-POP 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전국에 그리고 세계로 포장되어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강남스타일이 대 히트를 쳐서 이것이 그 대세를 인정하는양 보증하는양 유지 강화시켜나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내게 안정과 위로를 주는 것은 현대 한국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클래식을 계속 듣다보니 듣는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기를 배워보자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다음 문제는 어떤 약기를 선택할까가 되었습니다. 바이올린같은 현악기는 소리가 너무 날카로운 것 같았고 그렇다고 첼로는 운반이 어려워 실용성이 떨어지는 감이 있었습니다. 피아노는 진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때 즐겨듣던 모짜르트의 클라리넷 쿼텟이 떠올랐습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그 곡을 언젠가 직접 붙어보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클라리넷은 부피도 작아 어디서나 가져 다닐 수 있고 학창시절 때 리코더를 잘 붙였던 경험도 있어 마음을 굳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사당동에 있는 레슨 학원을 발견하여 찾아갔습니다. 역에서 멀리 떨어져지지않은 2층의 아담한 빌딩으로 들어가니 중년의 친절해보이는 남자분께서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시작된 클라리넷 레슨은 거의 반년간 매주 한번씩 진행되었습니다. 리드악기다보니 레코더와 같이 직관적으로 바람을 내는것이 아니라 목이 좁은 병위에 바람을 스치듯이 부는 방법이 신기했습니다. 처음 낮은 미음을 내었을 때 마치 뱃고동같이 낮게 퍼지고 생각보다 큰 소리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차례차례 높은 음으로 올라갔고 각 음마다 복잡한 운지법에 익숙해지느라 시간이 소요됐지만 새 음을 낸다는 사실 자체가 마치 미지의 세계로 한발 한발 내딛는 것처럼 설레이고 재밌고 다음이 기대되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매일매일 수업준비와 쏟아지는 문서작성, 의무적인 비즈니스 미팅과 이어지는 폭탄주가 가득한 술자리 등으로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정신없이 달리는터에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해소할 길은 없었습니다. 비록 일은 힘들었지만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녹음이 가득한 안정감 주던 캔사스 생활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면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퇴근을 늦게 하여 보통 밤 9시에 레슨을 시작했는데 늦고 피곤하여 레슨을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다시찾은 연습실과 선생님을 만나면 그런 고민은 사라지고 어느덧 신선한 마음으로 음악으로 빠져들곤 하였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음을 만들어 내는 방법만 배우는게 아니라 악보를 읽는 법, 작곡가의 숨은 의도, 감정을 살리는 법 등등을 배우면서 음악도 학문처럼 넓은 폭과 깊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과거 경험, 생존하는 음악가들의 친분과 그에 대한 알려지지않은 이야기등을 듣다보면 어느덧 아쉬운 한시간이 흘러가곤 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밤거리로 나올 때 무언가가 가득찬 행복감과 뿌듯함이 밀려와서 큰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집으로 오면서 머리속에선 그 날 배운 지식과 방법에 대한 상기와 어떻게하면 더 잘 연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주말 오전은 거의 그 주에 배웠던 연주를 복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단독주택에 살아서 이웃의 눈치 볼 것 없이 마음껏 연습을 했습니다. 연주곡 중에 고향의 봄 같은 학창시절 음악책에 실렸던 노래도 있었는데 연습을 하고 방을 나와보면 어머니가 그 노래를 흥얼대는 걸 보았습니다. 비록 어설픈 연주가긴 하지만 분명 집안에 살아있는 음악을 붙어놓고 있었고 가정 분위기가 나도 모르게 생기있게 바뀌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벌써 레슨이 6개월이 되었고 높은 미와 같은 3옥타브까지 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까지 소리내는데 시간이 걸렸고 낮은 미에서 시작하여 높은 미까지 넓은 음역대를 소화해 내는, 아무것도 몰랐던 작년에 비해 장족을 발전을 이룬 내 자신이 대견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소리 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아름답게 내고 더 나아가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느냐가 훌륭한 연주자로 가는 관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도 비록 악기로 연주하고 있지만 자신의 목소리로 감정을 아름답게 실어내는 성악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었고 항상 듣는 말처럼 악기와 내 자신이 혼연일체되어 마치 하나의 또 다른 신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끊임없는 시간과 애정을 투자해야겠지만 분명한건 비록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그 순간순간이 내 마음을 가득채워줄 것이고 희노애락의 복잡한 인생길에 외적인 번잡함과는 무관하게 아무도 뺏을 수 없는 나만의 유일한 행복의 순간들이 마치 음악처럼 조화있게, 부드럽게, 그리고 밝고 행복하게 삶의 저변을 유유히 흘러갈 거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인간관계와 성과에 시달리며 건조하게 세월이 지나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음악이 있고 그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있다면 그 건조함을 적셔줄 촉촉한 지하수가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와 그렇게 내 삶을 위로해주고 기쁨을 주며 그 기쁨이 더 흘러넘치면 주위도 밝게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ssay 연재 - 마지막회

좌절하지 않는 삶의 열매 (3)

권준희 (식품영양 87)



5. 사랑과 갈등

그렇게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내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나는 한국에서도 공부와 일만 하던 공부벌레, 일벌레였기에 연애다운 연애 한번 해보지 못했었다. 미국에 와서 몇몇의 미국 친구들이 데이트를 요청해 온 적이 있었지만 (어떤 부류의 백인들은 아시아 여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아시아 여인은 남자들에게 무조건 복종적으로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었을까?), 나는 부모님께서 절대로 외국인과의 관계를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친구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시련을 겪은 후, 나의 그런 생각이 서서히 바뀌어 가기 시작했다. 그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늘 나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하고 챙겨주던 친구 제임스와 가까워지게 된 것이었다. 그 친구는 처음에 내가 너무도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던 중 우리는 조금씩 정이 들었고 알면 알수록 처음 본 모습과 다름없이 아니, 그보다 더 착하고 사려깊은 모습으로 내게 비춰지고 있었다.

국제결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 고집은 내가 그리도 소중히 여기던 생명과 처녀성이 한꺼번에 빼앗길 뻔 했던 그날 밤 이후, 그리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힘들고 아프던 마음에 크나큰 위안이 되었던 그의 사랑을 나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제임스와 나는 서로에게 연결된 운명의 끈을 당기며 자석처럼 서로한테 끌려가고 있었다. 그는 나와 함께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공원을 산책했으며, 나의 수많은 보고서들을 수정해 주는 일에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그와 절친한 친구였던 스테인과 함께 우리 셋은 저녁식사를 순번대로 돌아가며 준비하는 등 기숙사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참으로 행복했다. 힘든 유학생생활에서 내가 견뎌 낼 수 있는 에너지를 그들로부터 충전 받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와 부모님과의 갈등은 더욱 심해져 갔다. 우리 부모님은 매우 보수적인 분들이셨기에, 당신들의 자녀가 국제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 분들이 아시는 국제결혼의 모습이란 한국전쟁 이후 미군과 결혼하여 불행하게 사는 한국 여인들, 폐쇄적인 한국사회에서 수없이 조롱을 당하는 혼혈아들... 그들이 전부였다. 또 미국인들은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하시며, 나도 이혼녀가 될 수 있을 거라 말씀도 서슴치 않으셨다.

제임스와 나와 관계의 알기 전에도 늘 미국 사람과 사귀면 안된다고 귀에 딱지가 앉도록 말씀하시던 어머니와 아버지셨는데, 제임스와 가까워지는 것을 눈치 채신 후에는 더욱 강하게, 때로는 야박 하시리 만큼 차가운 태도를 보이셨다.

부모님 말씀의 어느 것 하나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던 순종적인 딸이었기에 나의 이런 상상 밖의 행동을 더욱 이해하지 못하셨던 것이었다.

특히 나에게 큰 기대를 하셨던 아버지께서는 나와 제임스가 친해지는 것을 아시고는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시던 1994년 1월에 아이오와를 방문하셔서 눈보라보다 더욱 차가운 눈길로 제임스를 노려보셨다. 그 눈초리는 아직까지 나는 물론 제임스도 잊을 수 없다. 아버지는 제임스와 오래도록 이야기를 하셨다. “준희를 포기해라. 그 아이는 미래를 한국에서 보내야 할 사람이다. 그녀의 뜻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양보를 해라. 다른 여자들도 많지 않느냐?” 밤새도록 호통 반, 회유 반, 제임스를 설득 하셨다.

아버지가 오셨던 그 이후에도 어머니는 자주 나를 찾아 오셨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제임스의 인사를 받기조차 꺼려하시었다. 부모님들은 제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고 관심조차 없으셨다. 또한 한국에서는 나를 설득하려는 편지가 계속 날아왔다.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여 잘못된 결정을 할 때는 의절하겠다는 모진 말씀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애원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마음을 돌리려고 하셨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헤어지길 원하셨지만 서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국적은 달랐지만 그의 가슴에 따뜻한 피가 흐르고 사랑이 넘친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만 갔다. 사랑하는 남자와 세상에 둘도 없는 부모님 사이에서 나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부모님께는 참 죄송한 일이었으나, 나는 만난지 1년 4개월만인 1994년 크리스마스 전날 밤, 제임스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나는 제임스의 진실한 사랑을 믿었으며,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나도 제임스도 부모님의 뜻에 거역하면서까지 결혼을 할 생각은 없었다. 결혼만큼은 가족의 축복 속에서 하고 싶었다. 그래서 청혼은 받아들였지만 흔히 하는 대로 결혼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부모님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되는 동안도 나는 감정에 치우쳐 학생으로써의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감정의 격동됨을 끌어안고도 학업에 열중해야 했으며, 학과 조교 일을 비롯한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했다.

학과에서 또 생활과학대학에서 나의 존재는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고 장학금을 받고 또 조교일을 하며 처음 계획한대로 1995년 5월에 석사학위를 받았다. 곧 이어 1995년 가을 학기부터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미국에 온 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석사 과정을 해냈다는 자신감과 함께 또 다시 박사 과정에 도전 하겠다는 강한 욕망이 불씨 되어 가슴을 태우고 있었다.

6. 관계의 회복

약혼 반지를 받고 난 후, 제임스와 나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결심을 했다. 우리의 진심을 편지와 카드에 담아 띄우고 전화도 자주 드렸다. 그 분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계속 확인시켜 드리려고 노력했고 그 사랑만큼 제임스와의 사랑도 참으로 귀한 것임을 알리려 했다.

그러나 상처난 부모님과의 관계는 그리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나와 제임스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차갑게 닫힌 부모님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약혼한지 1년이 지나도록 부모님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조심스레 결혼이야기를 꺼냈을 때, 부모님은 역정을 내시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소리치셨다. 결혼을 하든 말든 이제 상관 안 할 테니 부모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결혼식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부모자식과의 관계도 끝이라고 역정을 내셨다.

매일 매일 눈물을 먹고 살았다. 한때 부모님의 반대에 지친 나는 제임스에게 파혼을 제안했었다. 도저히 힘들어서 더는 이렇게 살 수가 없었다. 지친 내 모습을 보고 제임스도 많이 힘들어 했지만 헤어진다는 것은 이미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일들이 있는 동안에도 부모님은 여러 차례 미국을 방문하셨다.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날이면 부모님 뜻에 거역한다는 죄책감과 외로움, 가난한 학생으로 아무 것도 해드리지 못하는 무능함 등에 감정이 격하여져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늘 모범생이었던 큰 딸의 배신은 부모님께도 너무나 건디기 힘든 일이었고, 그분들의 아파했을 마

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죄송할 따름이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가까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부모님을 설득할 것을 포기하고, 그분들의 뜻에 거역하면서까지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을 하였다. D-Day는 1996년 6월 8일이었다. 부모님께서는 3월 중순쯤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결혼식엔 아무도 갈 수 없으니 혼자 알아서 하라고 호통을 치시며 화를 내셨다. 혼인에 대한 기대와 기쁨 보다는 부모님께 불효를 했다는 죄책감으로 속상한 날들이 많았지만 제임스를 더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결혼 날짜를 알려드린 후부터, 부모님의 어투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께서는 “나는 사업 때문에 참석할 수 없는 대신 네 엄마를 다녀오라 하겠으니 너무 섭섭해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 다음 아이들이 힘들어 할 테니 혼혈아는 낳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와 제임스에게는 뼈아픈 상처가 되었지만, 그래도 드디어 부모님께서 나를 용서하기 시작하셨다는 기쁨에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했으며 천하를 다 얻은 느낌이었다.

4월 중순 어느 날, 부모님께서 잘 아는 집사님의 딸이 외국인과 당당히 교회에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시고 오셨다며, 폭탄제안(?)을 하셨다.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지 말고 한국으로 나와 식을 올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결혼식은 허락하되, 피로연 같은 것은 기대하지 말라 하셨다. 얼얼불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빠르게 해동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잃었던 부모님의 사랑이 봄풀처럼 다시 소생을 한 듯, 나의 마음은 안도감과 함께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다.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양보를 하시던 부모님께서 우리 집안 첫번째 결혼이기에 후회없이 해주고 싶다 하시며 준비해 주신 결혼식은 내가 보던 결혼식 중 최고였다. 우리가 미국에서 돈을 모아 샀다는 수수한 웨딩드레스도 마다하시고 한국에서 눈꽃처럼 희고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다시 맞춰 주셨다.

제임스의 예복, 미국사람들은 바라지도 않는 혼수, 제임스와 시어머니가 한국에 갔을 때 묵을 아파트, 또한 400여명의 손님을 위한 멋진 피로연까지... 한번 용서하신 부모님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았으며,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회복이 되어갔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더니 우리의 사랑 앞에 백기를 드신 부모님의 사랑은 노래가사처럼 정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신 것 같았다.

늦은 봄, 우리를 축복하는 듯 햇볕도 참으로 밝고 깨끗하던 1996년 5월 어느날, 한국의 도시 한가운데에 우뚝 솟은 교회당에서 나는 부모님과 많은 친구, 친지들의 축복을 받으며 제임스와 혼인에배를 올렸다. 어깨에 놓였던 무거운 짐을 내려 놓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미국으로 떠나던 날 밤, 기쁨보다는 서러움을 이길 수 없어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이제는 부모님의 슬하를 정말 떠나는구나.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떠나는 것이구나...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고 “네가 한 결정이니 할 수 없지 않느냐” “왜 노랑 머리냐” 하시며 핀잔 하셨으나 나는 그날 밤, 어머니께서 아파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머나먼 세계로 향해하듯, 자식을 끝없이 떠나 보내야 하는 부모님의 심정을 내가 왜 몰랐겠는가? 내가 미국인인 제임스와 그의 사랑을 선택한 만큼 내가 치루어야 할 삶의 몫인 줄 알면서도 내 피붙이와 이젠 오래오래 이별해야 된다는 고통에 가슴앓이를 해야만 했다.

7. 졸업 그리고 새 출발의 희망

결혼을 하고도 나는 부모님의 도움에 의지하여 살수 밖에 없었다. 가난한 학생으로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젠 독립하여야 하는데, 다른 가족이 가까이에 없으니, 힘들 때마다 어머니를 미국에 오시라고 부탁 드려야 했다.

1997년 11월 첫 아들, 카일을 낳았다. 처음엔 자식을 낳지 말라고 하시던 부모님이셨으나, 막상 첫 손주를 보시니 예쁘셨던 것일까? 당신의 딸이 낳은 새 생명이었기 때문이었을까? 부모님께서 진정 어린 사랑으로 아기를 안아주셨다.

아기를 낳고 보니 앞으로 키울 일이 막막 했다. 파트타임으로 대학원에서 일을 해 받은 돈으로는 아이를 맡기고 공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한국의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없고(이미 IMF를 겪으며 아버지는 거의 30년 이상 일하시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신 이후였다), 결국 없는 시간을 쪼개어 다른 일들을 더 맡아 하게 되었다.

제임스도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밤에는 추운 냉동 창고에서 일을 하여 필요한 생활비를 벌어야만 했다. 나는 아기를 낳은 지 3주 만에 수업을 들으러 찬 바람이 불어대는 캠퍼스를 걸어야 했고, 아기는 방학이 끝나고 봄 학기 시작과 함께 생후 2개월부터 하루 종일 어린이방에 떨어져 생활 하게 되었다.

첫 아이를 낳고 나니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더욱 절실해졌다. 옛말에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던가?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의 부족했던 과거가 더욱 부끄러웠고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해드렸던 지난 수년간의 시간이 후회스러웠다. 부모님을 뵈 때마다 몇 번이고 진심으로 사죄를 했다.

아이를 낳고 나니 아이의 양육과 학교생활을 병행해야 하니 학업은 더욱 진전이 없었다. 더 많이 일을 해서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야 했고, 아기와 씨름하며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학업을 전처럼 열중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또 도움의 손을 벌릴 곳은 부모님 밖에 없었다.

어머니께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마지막 두 달 동안 미국에 와서 우리 가족을 도와주셨다. 그 동안 아버지는 홀아비 아닌 홀아비 생활을 하셔야 했다. 올케가 음식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드렸지만, 며느리로 부터 얻어 먹는 밥이 어머니가 해 드리던 것에 손끝만큼도 못 미치었을 테니....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큰 딸의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으셨고 나는 염치를 무릅쓰고 계속 도움을 청할 수 밖에 없었다.

1999년 10월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어머니께서 8월 말부터 와서 도와주시고 계셨기에 집안일은 모두 어머니께 맡긴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실에서 지냈고 결국은 박사논문의 집필을 마치게 되었다. 박사과정을 시작한지 4년 여만의 일이었다. 이제 마지막 발표와 심사만 남겨 두고 있었다. 미국 유학 생활에서 산 넘어 산, 몇 개의 산을 넘어 여기까지 왔지만 마지막으로 제일 큰 산 봉우리를 혼자 맨발로 넘은 듯 하늘을 향해 소리라도 치고 싶었다.

박사논문의 마지막 심사가 있기 2주전, 현재 일하고 있는 텍사스 여대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텐튼으로 와 달라 는 요구를 받았다. 늘 졸업하기 전에 직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에의 초대는 기도의 응답 이었고 엄청난 고비를 하나 다시 넘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었다.

갑자기 할 일이 많아졌다. 논문발표 및 취업 인터뷰 준비, 게다가 10월 말에 있던 학회발표까지. 나는 그 정신없 는 와중에 폐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증세에 시달려야 했다. 모두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한 순간도 나를 위해 쉴 수 없던 건강에 결국 적신호가 왔으며 또 다른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 되었다.

드디어 1999년 11월 3일, 텍사스 여대에서 조교수로 와달라는 채용 제의를 받았다. 박사학위 수여하기까지 한 달 이 조금 넘는 시간을 남겨둔 때였다. 힘든 유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며 매달린 기도에 응답이 온 것이었다.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아서 무엇을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앉아있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은 것이다.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 나오듯 희망같은 한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 했다. 지난 6년 반 동안의 노력과 아 픔이 겨우 결실을 맺는구나 하는 감격에 북받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텐튼에서 일을 시작한지 벌써 5년, 내년에는 부교수 승진 심사에 들어가니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다. 그 5년 동안 귀여운 딸, 둘째 믿음기도 얻었다. 둘째는 첫째보다 여유있는 삶의 상태에서 낳은 것이라 그런지 훨씬 안정되고, 사 랑스럽고, 웃음이 많다. 특히 엄마에게는 딸이 있어야 한다더니, 그게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이해할 만하다. 물론 카 일도 멋있게 커주었다. 이 귀한 아들딸이 지금 우리 부부에게 기쁨과 감사제목이 되고 있다.

미국에 온지 11년. 드디어 부모님을 모시고 휴스턴과 갈베스톤으로 여행다운 여행을 하게 되었다. 이번 여행 비용 은 우리가 100% 부담하기로 하고 부모님을 모셨다. 좋은 구경, 좋은 음식, 편안한 마음....이보다 더한 행복은 어디에 도 없는 듯했다. 혼혈아를 낳지 말라고 하시던 부모님께서 손주들을 너무도 예뻐해 주시는 모습에서 남편 제임스는 무 척 감격해 했다. 우리 부부는 부모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모두 이루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삶에 익숙해짐

한국으로 떠나시는 부모님을 배웅하고 돌아온 날 아침, 딸아이는 여느 때처럼 할아버지(파파) 방으로 뛰어갔다 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나와 “Where is PaPa?”하고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물었다.

“글쎄, 할아버지가 어디 계실까?”하고 아이에게 되물으니 “Papa in the car...(아이가 마지막으로 본 할아버지 할머니가 차에 타고 계셨으니)”라고 한다.

“아니란다, 믿음아. 할아버지는 한국의 할아버지 댁으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엄마는 많이 슬프단다.” “Papa home? Mama sad?”그러면서 아이는 내 뺨을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었다.

무언지 알지 못하는 엄마의 슬픔을 나의 어린 딸 믿음이 이해를 한건지 어쩐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말을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스해져 왔다.

그래,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베풀어 줘야 할 딸이구나. 내게 둘도 없는 어머니처럼, 나는 이 아이에게 소중한 엄마가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이별에 익숙해졌다기 보다는 삶에 익숙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깜깜한 밤이 있기에 낮이 더욱 빛난다고 했던가! 뒤를 돌아보면 힘든 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지도 모른다.

미국은 내게 많은 것을 주었다. 미지를 향한 무한한 희망과 기대, 그것을 짓밟던 시련도 주었지만 그 시련을 극복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사랑을 마련해 주었다. 힘든 도전도 주었지만 열심히 노력한 열매도 허락해주었다.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햇빛이 밝게 비치는 창 옆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씬 없이 조잘대는 녀석들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본다. 나의 부모님도 나를 키울 때 이렇게 흐뭇해 하셨을까?

2분의 1은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 그것은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일깨워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소명과 귀중한 아이들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그리고 소중한 나의 삶을 허락해 주신 부모님께서 이 세상에 머무시는 마지막 날까지 좋은 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오늘 아침은 왠지 기분이 더욱 상쾌하다.

필자 약력

1991년 2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
1991년 10월 - 1993년 5월	서울 시립 보라매병원 영양사
1999년 12월	아이오와 주립대학 호텔경영학과 박사학위 수여
2000년 1월 - 2008년 7월	텍사스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조교수 및 부교수
2008년 8월 - 현재	캔사스 주립대학 호텔경영학과 부교수

가족사항

남편 James Thompson 과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Manhattan, KS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지난 2004년, 텍사스 달라스 소재 뉴스코리아 주최로 열린 제4회 이민 - 유학수기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을 수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With Departure of Ke-Sook Lee, KC's Art World Loses a Dynamic Talent

**from Kansas City Star, June 28, 2013
By Alice Thorson**

오계숙 (미대 59)



This month, artist Ke-Sook Lee and her husband, Kyo Rak Lee, a radiologist retired from the University of Kansas Medical Center, packed up their Overland Park house.

A decade ago, their architect son, Charles Lee, transformed the interior into a modernist dream, including a light-filled studio for his mother on the second floor.

Now the house has been sold, and the Lees have left for California. It's a big loss for the Kansas City art world, where Lee has exerted a significant presence with fiber and textile works that explore the challenges of being a woman and her struggle for her own identity.

"She's right on the forefront of what's important," former Kansas City public art administrator Heidi Iverson Bilardo said 15 years ago. "She addresses issues that women in everyday life are addressing as they go about the challenges of being mothers, wives and working people."

Lee, an international artist with one of the busiest careers in town, began as a painter but is now known for delicate, embroidered works and ethereal installations. Her development has been a dynamic one, evolving from a core set of ideas rooted in personal history.

Born in Seoul, Korea, in 1941, she could feel her country changing during her year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College of Fine Arts, where she earned her bachelor of arts in applied art. As a student she tasted freedom, which made her move to the U.S. as a young bride in 1964 all the more wrenching.

"I was part of a new (post-war) generation in Korea," she said in a recent interview. "In the U.S., I was trapped in the house raising children."

While her sons were small and her husband was advancing his career, Lee took a few art courses at the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and later at Johnson County Community College, but she focused on raising her family. She waited 15 years before enrolling at the Kansas City Art Institute, where she studied with Warren Rosser and Ron Slowinski and earned a bachelor of fine arts in painting in 1982.

In 1981, Barbara Haskell, a curator at 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gave Lee a purchase award in the Mid-Four exhibition at 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But after graduation, "I came back to the same old kitchen," she said.

Still, Lee kept making art and finding opportunities to exhibit — in group shows at the Salina Art Center and the Kansas City Artists Coalition.

In the late 1980s and early '90s, Lee created a cycle of large oil paintings that conveyed her feelings of domestic entrapment, including a 1991 work in which she depicted herself with her face coming off as her children watch.

Lee held on to it, and the painting was featured in the couple's estate sale of contemporary and antique furniture, decorative arts objects and artworks, held just before they left for California.

"I just don't want to be a happy suburban wife," Lee remarked as she viewed the work readied for sale. "That's not enough for me."

The 1990s were a period of explosive development and growing exposure for Lee.

Richard Armstrong, then director of the Carnegie Museum of Art in Pittsburgh (now director of the Guggenheim), included her work in the Artists Coalition's 1996 River Market Regional Exhibition; Bilardo put her in the gallery's members show the following year and selected Lee for a 1998 Juror's Choice exhibit at the Artists Coalition.

Featuring works like "Study of My Face," a series of drawings in which the artist's face was hidden within a grid of charcoal and graphite strokes, and "A Portrait of a Woman as an Artist," based on her personal journal, the exhibit documented an aesthetic shift to an increasing reliance on drawing.

The seed was planted during her time at the Art Institute.

"I took a writing class and learned to write poems that I adapted to my work," she said. "Images began popping out, and I started to draw."

Lee hit her stride in 1999 when she was recognized with an individual artist's fellowship from the Charlotte Street Foundation. The award coincided with a key decision to begin translating her drawings into embroidery, a skill she learned as a girl from her grandmother.

"Women had no social life then; they could only be at home working," she explained in a 2009 interview with critic Elisabeth Kirsch. "They had to do all the cooking and make all the clothes. And homemakers had no social status. ... Embroidery was the most individual expression women had."

Lee's contributions to the Charlotte Street Foundation's annual awards exhibition included quiltlike expanses of stiffened rice paper squares emblazoned with little personal symbols and embroidered pillowcases accompanied by one-line poems.

Next came a "dish towel" diary and huge, filmy aprons, which Lee displayed suspended from the ceiling or pinned to a gallery wall. She enlisted doilies as supports for her own embroidered drawings of seedpods and flowers, part of an evolving visual vocabulary of organic forms connoting personal growth.

Locally, she began exhibiting at the Dolphin gallery, a top venue for Kansas City artists, and in 2003, she had her first one-person show in New York at the George Billis Gallery, the beginning of an ongoing relationship. She also landed exhibits overseas, in Paris (2002), Ireland (2005) and Berlin (2008).

In 2007, Lee exhibited 100 hand-embroidered handkerchiefs in an ambitious installation titled "One Hundred Faceless Women," in the "Pricked: Extreme Embroidery" exhibit at the Museum of Arts and Design in New York.

In show after show, she established a reputation for richly layered works combining innovation with materials, submerged narrative, a dialogue with abstract tradition and cultural commentary.

In the December/January 2004 issue of American Craft magazine, writer Sigrid Wortmann Weltge, author of "Bauhaus Textiles: Women Artists and the Weaving Workshop," characterized Lee "as an important artist of our time" and praised her "multilayered yet unified body of work proving the extraordinary power of art to transform

the ordinary."

The same year, Lee was recognized with an individual artist fellowship award from the Kansas Arts Commission.

Lee's work is represented in a range of public, corporate and private collections. Recently she was included in "The Female Gaze," a hefty volume documenting an extensive collection of works by women given to the Pennsylvania Academy of the Fine Arts by Philadelphia collector, artist and philanthropist Linda Lee Alter.

On the occasion of her mother's 100th birthday, Lee returned to Korea for her first one-person show in the country of her birth.

"During the Korean War, my father was disabled, and my mother took over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She supported us to have a good education and was disappointed when I ended up a homemaker," Lee said. The exhibit, "Dream Seedpod," on view at the Artlink Gallery in Seoul from December 2012 to January 2013, "was my way of showing appreciation," she said. "My mother was very happy."

The Korean War also provides the backdrop for "Green Hammock" (2010), a hammock created from a recycled army nurse's uniform.

Lee was 9 when the war broke out. Seeing the uniform in an army surplus shop decades later spurred her childhood memories. "I heard gunfire every night and saw many deaths in the street and saw the despair of their family members," she related when the work was exhibited in Kansas City.

Heather Lustfeldt chose "Green Hammock" for inclusion in "In the Moment," an exhibit at the Carter Art Center celebrating the 125th anniversary of KCAI, and it was subsequently featured in a group show at the Philadelphia Art Alliance. The Spencer Museum of Art in Lawrence recently acquired "Green Hammock" for its collection.

Saralyn Reece Hardy, the Spencer director, showed Lee's work years ago when Hardy was director of the Salina Art Center. She and Spencer curator Kris Ercums thought "Green Hammock" belonged in the Spencer, Hardy said, "as a statement of our time, but also as a clear expression of Ke-Sook's ability to nurture and care through art, making her command of the language of textiles through line and material, and her unfailing ability to use materials to share her insights."

"'Green Hammock' is a powerful reminder of the medical nurses who wore the uniforms and those injured," she added. "The kind of empathy for all that comes only from an artist with Ke-Sook's depth of experience and largeness of heart."

More recent works include installations created from pieces of tree bark, collected after a thunderstorm. The fallen bark "recalled a memory," Lee wrote. "I have seen three generations of women in our family, each rooted deep and wide to the ground in order to hold their families together."

Her move continues that theme — the Lees' sons, Charles and John, are in California.

But Lee's ties to Kansas City run deep.

"I felt like here, I joined the women's movement," Lee said, recalling the Equal Rights Amendment literature she encountered on the KCAI campus.

"This Asian woman came and awakened in the United States," she added. "Kansas City has given me tremendous, wonderful support in every way."

Accolades from the arts community

"I still vividly remember Ke-Sook coming into the Douglas Drake Gallery in the early 1980s with her two adorable young sons, who would slide down the bannister while Ke-Sook looked at every show the gallery

exhibited. She was in school then at the Kansas City Art Institute. The next thing you know, she flowered into the most amazing artist, doing heartbreakingly personal work that was shown around the U.S. and Europe."

Elisabeth Kirsch, art critic and freelance curator

"Ke-Sook had her first solo exhibition at the Artists Coalition in 1996. Her paintings explored the everyday life of women and her unique voice was evident even then. In the years that followed, it has been a pleasure to watch her push boundaries and explore the interior life of the mind in new ways."

Janet Simpson, executive director, Kansas City Artists Coalition

"Ke-Sook Lee is a truly inspirational artist, a quintessential professional and a wonderful, caring friend. Her work is infused with the beauty of her amazing character and fascinating life experiences."

Heather Lustfeldt,
curator and writer

"It has been a tremendous honor, privilege and delight to know and work with Ke-Sook over the past 15 years, and to witness the extraordinary development of her art, vision and career. She is a quiet force of nature and a great inspiration ... a wise, brave, strong, elegant, gracious, humble, deeply committed artist and woman whose delicate, beautiful, honest work expresses all of these things."

Kate Hackman, associate director, Charlotte Street Foundation

"Ke-Sook should be an inspiration to the people who are stuck at home, for whatever reason. Profound art is not always where you think it is. Ke-Sook showed me you can find it in your kitchen drawer, your laundry hamper or scattered in your front lawn."

E.G. Schempf, photographer

"Ke-Sook Lee's journey as an artist has been inspirational. Consistently imbuing her work with a sense of the personal, she emerged as one of Kansas City's most dynamic and engaging artists, exhibiting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Bruce Hartman, executive director, Nerman Museum of Contemporary Art

"She is a very honest maker, digging deep inside of herself. She puts it all out there and doesn't hide anything. She's been a delight to work with. She's very grounded and has a beautiful, quiet confidence. You see it in the work and that's how she is as a person as well."

John O'Brien, owner, Dolphin gallery

** 위 기사와 아래 사진은 오계숙 동문님의 블로그 ke-sooklee.com 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하트랜드 동창회 동문 소식

- 1. 금년 들어 지독히도 많이 내린 눈을 잠시 뒤로 하고, 3월 2일에 80' 학번, 3월 16일에는 90' 학번 동문과 가족들이 구 명순(간 66) 회장댁에 모여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같은 연대끼리,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얘기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Harvard /Ivy league 학교에 자녀를 보낸 박혜송(음 68) 동문님과 이치현(약 77) 동문님을 모시어 자녀교육에 관한 경험담도 듣고, 조언도 얻고, 질문과 토의시간도 가졌습니다. 권 준희(가 87) 동문의 아드님(High school 학생)도 참석하여 진지한 질문이 오고 갔습니다.



- 2. 양 재욱(약 PhD) 동문이 그동안 교수로서 근무하시던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Pharmacy를 그만두시고, LA 지역 대학으로 가게 되어 2월 말에 이사하셨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Assessment Committee Chair의 보직을 맡아 매우 바쁘게 지내신다는 소식 전해오셨습니다. 양동문님의 새 e-mail 주소는 jwyang@westcoastuniversity.edu 입니다.
- 3. 임 하진(의 79) 동문이 5월 말 Houston, Tx 에서 결혼하셨습니다. 임하진 동문은 Kansas City에서 저희 동창회 사무총장으로 일하셨으며, 지금은 Houston, Tx 에 거주하십니다. 새로운 주소는 Dr. Hajin Lim, 3300 Bellefontaine Street, Houston, TX 77025 입니다. 새가정에 많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 4. 오계숙 동문(미 59)이 주도한 "Artist Walk" Program이 5월 10일 Kansas City 에 소개하고 있는 Nelson -Atkins Museum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동문이 참석하여 Installation Art 를 설명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5. 4월 20 일에 Heartland 지부 춘계 golf 대회가 있었습니다. 봄날씨 치고는 약간 쌀쌀했던 아침에 모두 windbreaker 를 입고 그 동안 닦은 실력으로 유쾌한 golf game 을 가졌습니다. 젊은 동문님들의 프로에 못지 않은 실력으로 -5 라는 team score 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1등은 호민선(상 59), 박연희(간 64), 허영진(사 91), Mrs 이재명(의 59) team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수술후 회복중인 무릎에 brace까지 착용하고 golf game에 출전하신 Dennis Cho(이주현 음대 92, 부군) 감사합니다. 이 대회를 위해 이치현(약 77) 동문님과 이우영 (사대 94) 동문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30여명의 동문들이 모여 장영준 (농 83) 동문님댁에서 준비하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근황도 들어보고 옛날 이야기도 들어보며 많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Omaha 에서 항상 내려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오태요(의 56)/김명자 (문 62) 선배님의 건강하신 모습 다시 뵈어서 기뻐했습니다. 음식과 장소와 분위기를 마련하여 정성으로 대접해 주신 장영준 동문님과 사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6. 5월 말 일주일 간격으로 EF 5 tornado가 Oklahoma 주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만, 우리 OK 동문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김호원(치 52), 구명순(간 66), 배규영(사 68), 이상강(의 70) 과 김경숙(가 70) 동문이 6월 21-23일 Washington DC 에서 열린 서울대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 8. 이교락 선배님(의 53)과 오계숙 (미 59) 선배님께서 6월말 오랜 Kansas City 생활을 정리하시고 California 로 이사 하셨습니다. 동창회에서는 6월 25일 farewell dinner 를 가졌습니다. 이교락 선배님은 서울대 Heartland 지부 동창회 초대회장님 이었고, 오계숙 선배님은 6대 이사장님 이셨습니다. 이 교락/오 계숙 선배님은 17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이 광활한 Midwest 지역에 서울대 동창회 Heartland 지부를 발족하고, 동창회를 지금 여기까지 발전 시키는데 물심양면으로 큰 기둥이 되셨습니다. 동창회로서는 선배님께서 이 지역을 떠나시는 것이 대단히 아쉽고 섭섭합니다만, 선배님의 California 생활에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배님의 새주소는

2430 5th St Unit C
 Berkeley, CA 94710
 전화 ; 913-706-3529(이 교락), 913-706-4642(오 계숙)

다음은 이교락 선배님께서 보내신 e-mail 에서 발췌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warm message on my departure and the invitation to write my farewell note to the members of our Heartland Chapter. I lost myself how to respond to your kind, overly exaggerated praise about what I have achieved professionally and personally for the past 42 years in Kansas City. It certainly has been a long period of time, but retrospectively it was a short period passed so fast as a phase of the short life cycle of any human being. I have done with my best that what I thought should be done professionally and personally as a member of the society. With my limited ability, I couldn't achieved more than I had. We will keep in touch with you and other members. Thank you."

Kyorak



- 9. 박신혜(간 96) 동문이 postdoctoral fellowship을 마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Nursing의 Assistant Professor로 임용되었습니다. 박동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Heartland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창회 공지사항 및 광고

서울대 동창회 Heartland 지부의 2013 년 "동창회 및 동문의 밤" 행사가 9월 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예전처럼 낮에는 Kansas City 남부에 위치한 Sycamore golf course에서 golf 대회를 하고, 저녁에는 Kansas 주 Overland Park에 소재한 Sheraton Hotel 에서 동창회 및 동문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이번 6월에 새로 취임하신 미주 총 동창회 오인환(문 63) 회장님께서 참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미리 schedule 조정하시어 많은 동문님께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동창회 Heartland 지부 에서 Web site 관리를 맡아주시실 web master와 E-newsletter 를 담당하실 editor를 찾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이 있으신 동문님이나 주위에 추천하시고 싶으신 동문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동창회 하트랜드지부 8대 임원 명단

- 회장 : 구명순(간. 66. Chung, Mary)
- 차기회장 : 이상강(의. 70. Lee, Sang Gang)
- 총무 : 이치현(약. 77. Lee, Chi Hyun)
- 기획 : 고영희(간. 72. Rhee, Sweety)
- 재무 : 이주현(미. 92. Cho, June)
- 서기,편집 : 박신혜(간. 96. Park, Shin Hye)
- 홍보 : 임소연(음. 92. Chun, So Yun)
- 섭외 : 이우영 (사. 94. Lee, Woo Young)

- 이사장 : 이상문(상. 57. Lee, Sang Moon)
- 간사 : 오명순(사. 69. Bae, Myung Soon)
- 감사 : 박혜송(음. 68. Lee, Hye Song)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